

청년생활

7

1962



500만 톤 풍년 고지 돌파를 위하여!

—황해남도 연안군 개안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은 논 5회 제초를 다그친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154)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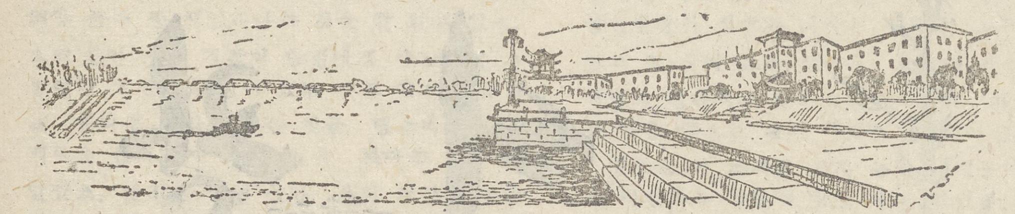


금강산

7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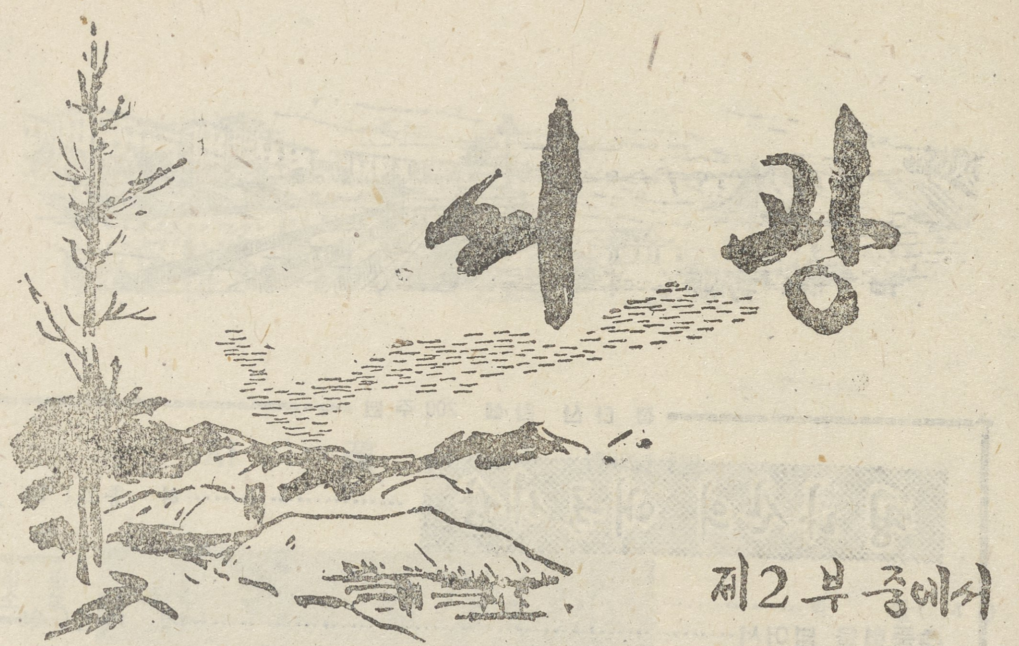




차 례

1962년 7호

표지 1면……인민군 추모탑



서 광 (1)

박 달

성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일제와 그 주구들은 마치도 조선 내에서 혁명의 불꽃을 완전히 꺼버리기라도 한듯 만세를 불렀고 축배를 들었다. 더우기나 리 용운, 김 철주까지 체포하게 되자 놈들은 큰 위훈이라도 세운듯 두다리를 쭉 폈다. 류치장에 들어 온 성호는 감개 무량한 바 없지 않았다. 바로 일 년 전 이 류치장 방 들에는 김 일성 장군의 충실한 전우들이며 제자들인 리 동순, 권 벽, 김 시욱을 비롯한 수 많은 애국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 놈들의 모진 고문에 신음을 한 곳이다. 또한 마 동철 같은 동지는 이 방에서 희생되지 않았는가, 어찌 감개가 없으며 원한이 없겠는가. 그 동지들은 지금 함흥 형무소 철창 속에 자유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동지들이 떠나간 뒤를 이어 성호가 또 들어 온 것이다.

성호는 김 창연 개에게 속은 것이 두고두고 분했다. 아무때라도 복수의 죽음을 주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의 원수들, 변절자들, 성호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놈들에게 잡혔으니 도리가 없다. 성호는 6월 이후 재 검거로 들어와 신음하는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체포되였지만 우리 혁명의 승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 오고 있습니다. 조선은 머지 않아 독립을 하고 김 일성 장군은 개선을 하실 것입니다. 동무들, 용기를 내시오, 끝까지 굴하지 맙시다.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시오…》

성호는 통방을 통해 이렇게 동지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놈들은 성호를 비롯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지도자들에게 극형을 가하기 위하여 흉계를 꾸몄다. 놈들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던 보천보 사건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과 지도자들이 직접 가담했다는 죄명을 날조하기에 광분하였다. 놈들은 당시의 참패의 분풀이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에게 해 보려고 비렬하게 날뛰였다. 일제의 충실한 주구인 최령 경부놈은 이 죄명을 날조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최 령 경부놈은 이 날조를 살인적인 고문에 의거해 만들어 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이놈은 위조 문건을 만들고 조선 민족 해방 동맹 간부들을 끌어 내다가 승인하라고 강박하였고 이에 응하도록 고문을 했다. 간부들은 완강히 거부하였다. 간부급이 아니더라도 놈들의 흉악한 의도를 아는 동무들은 생명을 내걸고 투쟁을 계속했다.

최 경부놈은 성호에게 위조 조서를 승인하라고 내 밀었다.

《이보, 김 성호씨, 우린 당신이 조선 민족해방 동맹 총 책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오래'동안 우리 경찰이 당신에게 속았으며 그 능란한 호신술에 넘어 갔던 것도 숨기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으며 대일본제국을 반대하여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잘 알았소. 당신은 수년 동안 우리 경찰을 롱락했소. 만일 우리에게 마음 대로 처리하라 했으면 우리는 두 말 없이 당신을 끌어 내다 목을 달아 맸을게요. 그래도 시원치 않소. 그러나 황국의 법은 항상 너그럽소. 당신들 불한당 들과 같지 않단 말요.》

성호가 눈을 치뜨며 최 경부놈을 노려 보았다.

《여보 나으리, 필요 없는 이야기는 그만 좀 두시구려, 그렇게 한가하슈?》

성호는 최 경부놈이 일부러 비꼬느라고 당신이니, 씨니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하는게 얄미워 한 마디 비꼬았다. 뜻하지 않은 반발에 봉착한 최가놈은 눈에서 불이 튀였다.

《뭐야? 아직도 큰 소리야.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 불한당들 대갈속을 고쳐 주는 데야, 맛을 좀 봐야 알겠니?》

성호는 대답 대신 혓침을 탁 뱉았다. 최가놈은 성호를 좀 골려주자는 것이 오히려 골림을 받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끼였다. 부아 대로 하면 당장 달려 들어 '구두'발로 걷어차고 싶었으나 서장으로부터 성호에게만은 처음부터 무지하게 굴게 아니라 인격을 존중 하는체 하면서 취조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분을 참느라고 숨을 씩 씩 몰아 쉬였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신사적으로 의견을 좀 나누어 보자요. 자, 이 조서를 보고 승인만 하오. 그러면 당신하고는 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게요. 고집을 부리다가 공연히 개, 돼지 구실을 당하지 말고 솔직히 나오는게 좋소. 물론 당신이 부인한다고 이 사실이 소멸되는게 아니지만 한 것은 했다고 하는게 도리여 남자다운 일일께요. 자기 한 일을 부인하는 것은 비겁 분자로 밖에 될 수 없소.》

성호는 류치장에 들어 서면서부터 통방으로 사건이 폭로된 범위와 전말이며 놈들의 간악한 위조 계획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지 어떻게 위조되였나 궁금해서 조서를 보이는 대목만 얼른 읽어 보았다. 조서는 문답식으로 쨌는데 바로 보천보 사건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이 성호와 시욱의 지시를 도처에서 받고 몇 시에 보천 시내에 들어가 전선 줄을 어떻게 절단하고 방화는 어데어데 하였다고 쓴 다음 끝으로 김의 지장이 찍히여 있었다.

성호는 이 조서를 보자 놈들의 행동이 너무도 비렬하고 악랄해 참을 수가 없었다. 성호는 머리를 숙인채 조서를 한번 비틀어 한쪽 구석으로 휘 던져 버렸다. 최가놈이 그만 발딱 일어 섰다.

《이 개 자식아, 그게 무언 줄 아니?》

최가놈은 분해서 펄펄 뛰였다.

《야 누구 없니? 이 놈을 당장 훈련장으로 끌고 가라.》

놈들은 고문하는 장소를 훈련장이라고 저희끼리 말했다.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 두 놈이 뛰여 들어 왔다. 성호를 량쪽으로 끼듯 데리고 나갔다.

성호에 대한 고문이 매일같이 버러졌다. 앙심을 품은 놈들은 성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성호의 몸은 온통 피 투성이가 되였다. 고문실에서 나올 때는 성호는 언제나 놈들에게 들려서 류치장으로 돌아 왔다.

《어디 보자, 네놈에게서 꼭 대답을 받고야 말테다.》

최 경부놈은 이를 바둥바둥 갈았다. 어리석은 놈들이였다. 성호에게서 대답을 받아 보려는 놈들의 발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태연했다. 다만 젊은 동무들이 당하는 고초가 가슴 아팠다.

혜산 경찰서에서는 류치장이 좁아 놈들의 무도장으로 쓰는 소위 《무덕전》에 검거한 동무들을 수용했다. 놈들은 넓은 마루 방에 동무들을 네 명씩 한 틀의 족쇄를 채워서 죽 앉혀 놓았다. 서로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얼굴에는 검은 헝겊으로 만든 면포를 항상 씌워 두었다. 그래 동무들은 옆에 앉은 사람도 알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동무들이 얼굴만 옆으로 움직여도 지키고 있던 간수놈이 달려 와 무작정 격검채로 때린다.

덕산동 리 필선과 송 조연은 면포를 쓴 채 늘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서로 알아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침 소리로 서로 말을 통해 알게 되였다. 필선이도, 조연이도 몹시 반가웠고 기뻤다.

《고문 몹시 당했소?》

필선이가 나직히 물었다.

《괜찮아요. 죽지는 않을 테지요. 이 원쑤를 갚는 날까지 죽을 수 없어요.》

조연이가 조용히 하는 말이다. 면포로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하지만 말 소리는 더 없이 다정했다.

《동무 말이 옳소.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정신적으로 지면 견뎌내기 힘들어요.》

필선이가 격려하듯 말하였다. 이렇게 수군수군 속삭이는 말은 두 동무만이 아니라 옆에 앉은 동무들끼리 간수놈이 가까이 없기만 하면 서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앉아 있는 동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 성호 동지가 체포되여 들어 왔다. !》

하는 말이 삽시에 《무덕전》안에 퍼졌다. 조연은 그만 분하고 원통해 흐느끼였다. 조연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마루'장을 쾅 쳤다. 간수란 놈이 놀라서 두리번 거렸다.

《어느 놈이냐?》

모두 침묵했다. 간수놈은 약이 올라 격검채를 들고 돌아 가며 한 대씩 갈기였다.

《왜 때리오?》

반항을 하는 동무는 두 대, 석 대씩 때리였다. 그러자 모두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야—》

간수놈이 겁이 나서 뛰여 나갔다. 순사 부장과 형사들이 뛰여 왔다.

《무엇들이냐?》

부장놈이 호령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때리오?》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동무들은 성호가 체포된 소식을 듣고 격분해 있었다. 검은 면포들이 일제히 떨리였다. 부장놈은 사태가 재미 없는 것을 알자 간사하게 달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는 이 방을 담당한 부장이요. 떠들면 안 되오. 서로 감방 규률을 지켜 주기 바라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간수를 통해 나에게 직접 말해 주오. 이렇게 한꺼번에 떠들면 모든게 해결이 안될 뿐 아니라 당신들은 폭행 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오. 당신들을 때린게 잘못 됐으면 내가 책임지고 잘 알아 보고 적당히 처리하겠소.》

놈들은 작년 1차 때 한 번 혼난 일이 있어 이런 때는 회유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았다. 동무들은 돌발적인 행동들이라 그 이상 반항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놈들은 백여 명이 넘는 이 피고자들이 무엇 때문에 돌연 그런 반항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담당 간수가 특히 못되게 굴어 인심을 잃은 때문만이 아니라 김 성호가 체포되여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촉했다. 그래 놈들은 김 성호를 독방 류치장에 옮기고 거기 있던 류치인은 모두 딴 데로 옮기였다. 그리고는 성호에 대한 취조 고문 일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류치장 안에서 그런 비밀이란 보장될 수 없었다. 성호에 대한 놈들의 비인간적 학대, 살인적 고문, 성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소제부로 돌아 다니는 할아버지 입을 통해 알려졌다.

필선이, 조연이, 사문등 동무들, 후복동 동무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김 성호 동지를 놈들의 학대에서 구원하자!》

이런 격한 말들이 옆에서 옆으로 돌아 갔다. 누구나 한 사람같이 격동되였다. 이튿날 조연이가 은근히 필선에게 말을 건넜다.

《필선 동지, 김 선생님을 구원하는 투쟁은 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굶어 죽기로 결심하고 김 선생에 대한 고문을 무조건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떨가요?》

필선이가 그 말을 듣자 옳다 하는 생각이 퍼 떠올랐다. 그런 생각을 왜 여지 못 했던가? 필선은 금시 가슴이 후득후득 뛰였다.

《조연 동무, 좋은 의견이요. 그 투쟁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소, 이런때는 그런 투쟁 밖에 도리가 없겠소. 단식 투쟁을 하기로 합시다. 우리 목숨을 내걸고 합시다. !》

필선은 그 대로 흥분했다.

《김 성호 동지에 대한 살인적 고문 즉시 중지, 인격적 대우의 보장을 요구하여 단식 투쟁을 하기로 하자!》

이 말이 돌아 가기 시작했다. 단식 투쟁을 감행할 데 대한 결의가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사건으로 체포된 동무들은 물론 일반 범죄 혐의로 잡혀 들어 온 사람들까지 이에 호응하기로 맹세가 되였다. 다음 날 점심 식사가 들어 왔다. 모래알 같은

만주 좁쌀로 만든 밥과 소금에 저린 무우짠지 몇 쪽씩 담긴 반찬이 운반되였다. 식사 구령이 내려졌다. 이때 더 필선이가 벌떡 일어 섰다. 그와 같은 죽쇠에 걸려 있는 세 동무가 같이 일어 났다. 필선은 검은 면포를 제끼였다.

《여러분! 동지들!》

필선의 쨍쨍한 목소리가 찌르릉하고 《무덕전》 천정을 울렸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김 성호 선생에 대한 살인적 고문의 무조건 중지와 인격적 대우를 보장할 때까지 단식 투쟁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생명을 내걸고 단식 투쟁을 단행할 것을 선언 합시다.》

필선의 목소리가 쩡쩡 울렸다. 필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체 흑면을 쓴 동무들이 머리를 들며

《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간수놈이 깜짝 놀라 돌아 다니였다.

《무어냐? 무슨 말이냐?》

필선이가 마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인제부터 단식 투쟁을 하기로 했소.》

무식한 간수놈이 얼른 알아 듣지 못했다.

《밥이나 먹지 않으면 너희나 배나 고프지 지랄이나 말아.》



간수놈은 채찍을 휘두르며 빙빙 돌았다. 모두 밥을 안 먹는다.

《정말 밥이나 아니 먹는가, 배나 고프면 먹었지, 지랄이 말아라,》

간수놈은 성이 대독 같이 올라 서투른 조선말로 뇌까리며 날뛰였다.

급식부가 빈 그릇을 가지러 왔다. 아무도 먹지 않았다.

《빈 그릇을 가져 가야겠는 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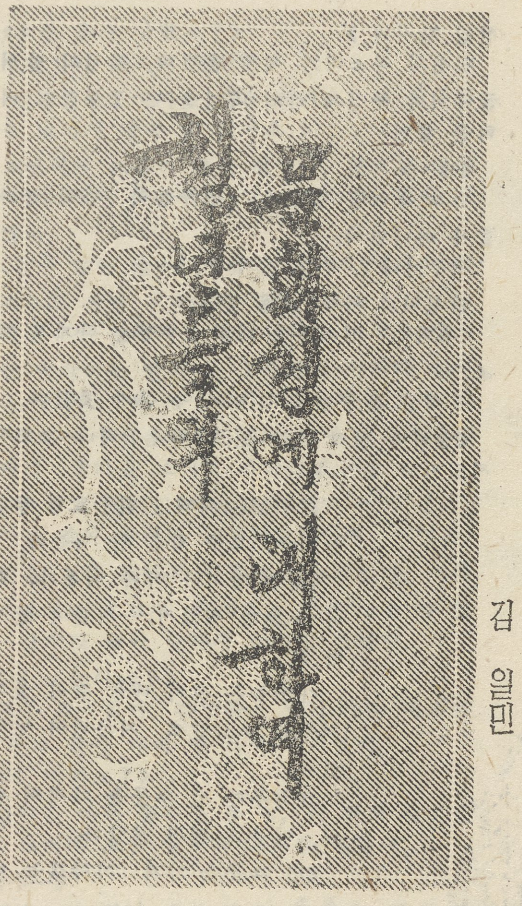
간수가 소리를 빽 질렀다.

《밥이나 먹지 않은 것 눈깔로 보지나 못 하는가,》

급식부가 가도 오도 못 하였다.

필선이가 끌려 나갔다. 밤이되여도 돌어 오지 않았다. 조연이가 끌려 나가고 다른 동무들 10여 명이 끌려 나갔다. 저녁 식사가 공급되였으나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서장놈까지 나와 돌아 보고 갔다. 일반 류치인들까지 가담한 단식 투쟁은 만 이틀만에 승리로 끝났다.

—다음호에 계속—



김 일민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전체 청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육성할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난 5월 3일 김 일성 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또다시 강조하시고 근로 대중과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청년들이 문화성을 높인다는 것— 이것은 모든 청년들이 인류가 이룩하여 놓은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지식 있고 문명한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현 시기 문화성 제고를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요구이며 광명한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는 혁명 투쟁의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사회주의 그 자체는 높은 문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명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를 움직이여 나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함께 높은 문화성,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준비하는 적극적인 투사들이며 또 그 사회에서 살게될 행복한 세대들이다. 공산주의는 모든 면에서 풍부한 사회이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정신적 준비를 완성해야만 한다. 즉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과학적으로 째인 생산 조직으로 되게하고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 원자화 등을 실현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것들이 어찌 선진 과학과 문화 기술로 무장한 새 인재의 육성 없이 가능하겠는가?

문화성을 높이는 문제는 특히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시대의 청년들이 담당한 거대한 역할로부터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청년들은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진 과학과 기술, 문화를 얼마나 소유하였는가는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문제가 그처럼 긴절한 혁명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문화성 제고— 이는 또한 청년들의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일반 지식을 넓고 깊게 소유함으로서만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더 잘 습득할 수 있으며 과학적 세계관을 보다 확고히 수립할 수 있다.

더우기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강령적 지침이다. 그럼으로 높은 지식이 없이는 당 정책을 심도 있게 파악 할 수 없으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끝으로 문화성 제고의 필요성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특수성과도 관련되고 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을 모독하는 20 세기 야만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물질 생산 분야에서 원쑤들을 힘있게 타승할 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적 면에서도 결정적으로 원쑤를 타승해야 한다. 부르죠아 반동 문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문화의 한없는 우월성을 시위해야 하며 썩어빠진 반동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면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문화적인 청년— 그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들이 지식을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완강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문화성, 지식 수준 제고에서 기본 방도로 된다. 완강하게 학습할 때야만이 높은 지식과 문화, 과학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 학습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녹쓸고 당 정책에 암둔해지고 혁명 대렬에서 점점 락오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활은 가르치고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이것은 항일 빨찌산들이 시종일관 실천해 온 혁명적 구호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휴식 시간에 모래 우에 글을 쓰고 행군 도중에는 동지들의 배낭에 글을 써 붙이고 그것을 보며 학습하였고 한권의 책도 그것을 골고루 륜독하고 서로 옮겨 베껴 가지고 다니면서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자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청년들은 이 모범을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에겐 가는 곳마다에 학습 장소가 있고 교양의 처소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에겐 책도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건도 있고 짜낸다면 얼마든지 시간도 있다. 꾸준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배우며, 이것이 생활의 일과로서 관습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실천을 통하여 지식을 더 공고히 하면서 더 넓고 깊게 습득해야 하며 로동하면서 학습하는 동무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청년들이 당의 요구대로 일반 지식 수준을 가까운 기간 내에 초중 졸업 정도 이상으로 되게 하자!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선 조선 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화성 제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과학, 문화 유산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잘 아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것을 잘 모르고서야 어찌 조선 혁명을 잘 수행하는 투사로 될 수 있겠는가!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들은 찬란한 과학,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력사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 혁명 전통으로 빛나고 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조국의 력사와 지리, 과학 문화 유산에 대하여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며 우리 나라의 자연에 대하여 지하 부원, 동물과 식물, 경제 지리에 대해서까지도 박식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애써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예술 서적들을 탐독하며 신문과 잡지를 애독하여 자기의 식견을 부단히 넓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세계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해서도 넓은 지식을 소유함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대중적 행군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자기 맡은바 일에 정통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화적인 청년— 그는 또한 높은 문화적 소양과 풍부한 정서의 소유자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것에 감격할 줄 모르고 벅찬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흥분하고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를 어찌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 투사, 열렬한 애국자라 할 수 있겠는가?

풍부한 정서를 키움에 있어서 문학 예술 작품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문예 작품은 인민 대중에 대한 중요한 교양 수단으로 되며 인간 생활의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더 깊이 리해하게 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힘과 용기를 얻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문학 작품을 읽을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리론만으로는 살 수 없다. 시도 모르고 소설도 보지 않고서야 생활이 너무 메말라서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응당 작품을 보고 주제를 평가할 줄 알며 남에게 생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이 영화도, 음악도, 미술 작품도 다 감상할 줄 알고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체육 운동을 즐기며 시도 랑송하고 웅변도 하고 속담도 알고 민속을 알며 예술 활동도 능숙히 할 줄 안다면 청년들의 생활은 또한 얼마나 생기있고 아름답고 풍만할 것인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문예 활동은 무장 투쟁의 중요 부문으로 되여 있었다.

백두 밀림과 만주의 광야에 15여 성상 불멸의 투쟁과 승리의 노래로 울려퍼진 혁명 가요도 수다한 인민들의 가슴에 항일 투쟁의 뜨거운 불씨를 안겨 준 많은 혁명 연극도 우리의 빨찌산 투사들이 원쑤와 싸우면서 직접 쓰고 작곡하고 연출하고 지도한 탁월한 문예 작품들이였다.

청년—그들은 가장 열렬한 문학 예술의 애호가인 동시에 문학 예술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할 줄 아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이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여 천리마 시대 청년의 기상을 더욱 나래치게 하자!

다음으로 청년들은 생활 문화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생활 양식과 관습에서 일체 락후한 것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든 생활을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것은 주로 청년들의 역할과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먼 옛날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으로서 미풍량속으로 이름 높다.

부화와 방탕, 사치와 랑비, 허식과 기만은 우리 청년들의 생활과 그 어떤 인연도 없다. 항상 검박하며 아름다운 마음씨로 살며 불타는 애정으로 인민을 대하고 모든 악에 대하여 용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민의 품성이다.

청년들은 웃 사람들, 부모와 선생, 선배에 대하여 항상 존경으로 대하며 동지간 의리가 강하고 집안과 이웃끼리 화목하며 거만과 무례를 증오하고 걸치레로 《멋쟁이》가 되려는 현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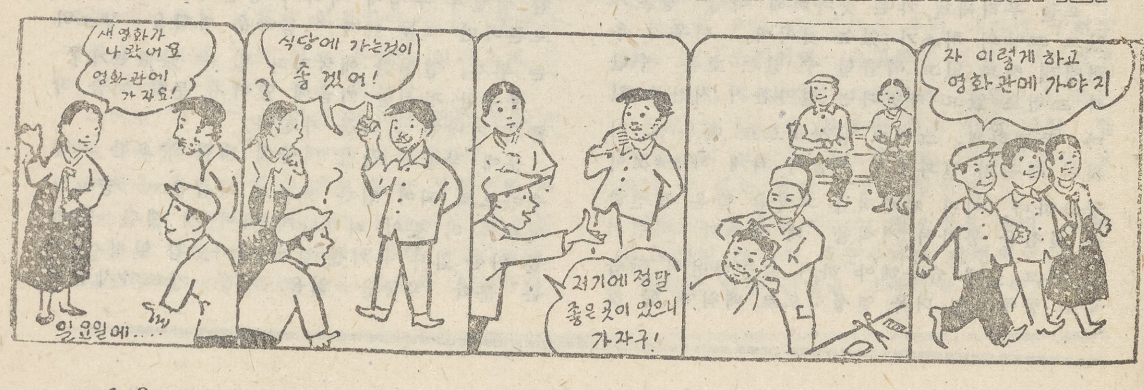
언어에서의 문화성은 그 사람의 문명 정도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우리 말을 깨끗이 소유해야 하는바 악담과 속된 비문화적인 언사를 결정적으로 극복하며 말을 고상하게 정확히 쓸줄 알아야 한다.

또한 생활 환경을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며 생활과 휴식을 절도 있게 조직하며 개체 위생을 잘 준수하는 문제도 계속 세심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로 끌어 올리며 일터를 문화적으로 꾸리는 일도 주로 청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집 한채 짓는데도 생활 필수품 하나 만드는 데도 인민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아름답고 쓸모 있어야 하며 천에 올리는 한가지 문양도 민족적 정서와 감정이 풍기고 우아하고 고상하여야 한다.

당과 경애하는 수령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문화성 제고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모든 청년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지, 덕, 체를 겸비한 믿어운 젊은이들로 꾸준히 완강하게 준비하자.



총 친 아들에게



김 오 돌

훈련이 끝나자 병사들은 록음이 우거진 숲속으로 헤쳐들 갔다.

병사들이 그늘 밑에서 땀을 드리고 있는데 특무장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병사들은 환성을 올리며 특무장을 둘러쌌다.

《김 승영 동무! 편지요.》

특무장은 맨 처음으로 승영 동무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내 주었다. 편지를 받은 승영 동무는 얼른 두툼한 봉투 뒤'등을 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였다.

승영 동무가 다시 나무 그늘 밑에 와서 봉투를 뜯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이렇게 소리쳤다.

《승영 동무! 우리 소대의 전통 대로 독보를 하지.》

《그게 좋겠소.》

하고 모두 찬성해 나섰다.

승영 동무는 편지를 꺼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아들에게,

승영아, 오늘도 몸성히 군무에 충실하고 있느냐? 집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도 모두 잘 있다.

수상 동지의 은덕으로 우리 집 생활은 나날이 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덩실한 기와집 속에서 옛날 지주놈들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금년에는 새로 라지오와 시계, 그리고 여러가지 가장 집물들을 장만하였다.

이렇게 살림이 늘어가니 나의 눈 앞에는 억울했던 지난 날이 자꾸만 되살아 나고 이 좋은 날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게 떠 오르는구나.》

승영은 한참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전우들에게 자기집 이야기를 하였다.

승영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룡운리는 해방전에 한 30호 남짓한 가난한 마을이였다. 몇해씩 이엉을 갈지 못한 지붕은 썩을대로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기울어지는 기둥은 말뚝에 의지해서 간신히 서 있었다. 노전 한'잎 없어서 귀 떨어진 가마니 뒤장씩 맞붙여 깔아 놓고 살았다. 이러한 집에서 그의 부모가 반생을 보냈고 이러한 집에서 승영이는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되는 날까지 지주 최 만금이라는 놈의 소작살이를 하였다.

그놈은 이름난 산'골 지주로서 이 마을 사방 20리 벌이 온통 그놈의 땅이였다. 그놈은 왜놈의 관청을 등에 업고 측량'대를 멘 놈들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주변의 림지들과 토지들을 몽땅 제 것으로 만들어 놓았었다. 그리고 불쌍한 화전민들이 일군 얼마 안되는 땅뙈기마저 자기 것이라고 떼 내였다.

1년 내내 농사 짓고는 가을 타작 마당에서 남는 것이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 겨울 나기도 힘든 형편이였다.

해방되기 이태 전 가을이 였다. 그 해는 몹시 흉년이 들었었다.

하루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탈곡을 끝마쳤는데 지주놈이 달려 들었다. 그때 지주 놈 치고 어느 놈이 다르랴만 이 최 만금이란 놈은 린색하기 짝 없는 놈이였다. 그 놈은 소작인들에게 김매기며 추수 탈곡은 물론 여름에는 새 베는 일, 겨울에는 화목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부역을 공짜로 시켰고 그러면서도 가을이 되면 소작료 외에 터'세, 물'세를 받아 갔고 지어는 자기 집에 면청 서기나 왜놈 순사들이 왔을 때 처먹인 접대비까지도 소작인들

에게서 받아 냈고 그 놈은 빗을 노아 변놀이도 하고 또 여름이면 보리쌀이나 좁쌀을 꾸어 주고 가을이면 그것을 입쌀로 리자까지 붙여서 받아 먹었다. 승영이네도 그 해 여름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놈 집 보리쌀 말이나 갔다 먹었다. 그래서 그 놈이 부르는 대로 소작료요, 물'세요, 터'세요, 접대비요, 장리'쌀이요 하고 퍼담아 주다나니 종자 한 알 남지 않은 형편이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지주 놈에게 다가 가서 아이한테 쌀 죽이나 한끼 먹여 보게 벼 한되박이라도 남겨 달라고 사정해 보았다. 그러나 이 짐승 같은 지주 놈은 그냥 달구지를 끌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경관 놈들이 달려 들었다. 이번에는 공출을 내라고 야단이였다. 그러나 벌써 지주놈에게 다 빼앗긴 것을 어데서 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 와서는 성화를 먹였는데 나중에는 공출을 내지 않는다고 가장집물까지 빼앗아 갔다. 그래서 온 식구가 알몸'둥이로 나 앉은 형편이였다.

그러나 그 모진 세상도 끝장이 나고야 말았다.

해방된 그 다음해 토지 개혁을 하던 날이였다. 큼직한 패말을 어깨에 멘 아버지를 따라 승영이네 온 가족이 논밭으로 나갔다. 그들은 논밭'머리에 패말을 깊숙히 박아 놓고 온 식구가 《김 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불렀다.

그 때 승영이의 아버지는 자기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오늘부터 이 논밭 3천 평이 우리 땅이 되였으니 곰만 갈구려, 이제는 우리 세상이 돌아 왔소. 이 패말을 좀 보오, 김 창혁이라 씌여져 있는 이 패말을…

땅을 주신 김 장군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요.》

승영이네는 토지를 분여 받은 그 해 농사를 잘 지어 가을에는 오막살이를 헐어 버리고 네귀 번듯한 새 집을 지었다. 거미줄이 쓸었던 쌀독마다 기름진 옥백미가 가득 찼고 벼'가마니가 수두룩히 쌓였었다. 그들은 원통하고 가난에 지쳤던 지난 날과 영원히 갈라졌다. 해방 후 그들의 생활은 정말 행복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행복한 생활에 불을 지르며 덤벼들었다. 승영이는 일시적 후퇴 시기에 겪은 뼈 아픈 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인민 군대가 후퇴한 후 미국놈들의 뒤를 따라 5 년 전에 남조선으로 도주했던 최 만금 놈이 살기 등등해서 다시 나타났다. 지주는 죽기 전에는 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 놈들은 첫 날부터 《치안대》 백정놈들을 몰고 다니면서 로동당원들과 열성 농민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다.

이 때 리 인민 위원회 서기장으로 일하고 있던 승영이의 아버지는 로동당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서 식량을 소개시키고는 늦어서야 노루 고개를 넘어 후퇴하였다.

아버지가 떠나 간 이튿날 저녁 무렵에 흉물스럽게 생긴 최 지주놈이 치안대장이란 놈을 앞세우고 그의 집에 달려들었다.

《…홍, 죽도 못 먹던 것들이 밥술이나 먹더니 볼때기가 다 늘어졌구나, 자, 봐라, 이게 내 땅 문서다. 이 땅을 공짜로 붙여 먹을 줄 알았더냐? 5 년 동안 소작료를 다 내라!》

지주놈이 이렇게 뇌까리며 땅 문서를 추켜 들었다.

그놈들은 아버지 간 곳을 대라고 야단했으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놈들은 승영이 어머니를 총'대로 마구치고 구두'발로 걷어 찼다. 어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며칠이 지난 뒤 놈들은 어머니와 승영이를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벌써 숫한 마을 사람들이 끌려 와 있었다.

한참 후에 놈들은 얼굴이 온통 찢기여 퉁퉁 부어 오르고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를 운동장에 끌고 나왔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이는 승영이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 후에 안 일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당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식량을 소개한 다음 노루 고개를 넘다가 놈들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놈들은 우리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우리를 다시 머슴'군으로 만들려 합니다. 놈들에게 한 알의 쌀도 주지 마십시요. 굴하지 말고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 높이 웨쳤다. 그 때 아버지의 장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고 아버지의 웨침 소리는 지금도 승영이의 눈에 쟁쟁하다.

미국놈의 지시 밑에 지주놈과 치안대장 놈이 아버지의 손을 쇠줄로 칭칭 감아쥐고 당기면서 식량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신음 소리 한마디 없이 놈들을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 볼 뿐이였다. 놈들이 다시 총창으로 아버지를 찌르자 그의 아버지는 《로동당원은 죽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더러운 놈아!》라고 웨치면서 지주놈의 더러운 배때기를 발'길로 힘껏 걷어 찼다.

지주놈의 절구통 같은 몸'둥아리가 옆으로 나자빠지더니 죽어가는 승냥이처럼 버둥거렸다. 그의 아버지는 치안대장 놈한테 달려 들었으나 그 순간 귀청을 째는 요란한 총소리가 련거퍼 울렸다.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요란한 총소리를 뒤이은 아버지의 마지막 웨침 소리를 들으며 승영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승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전우들은 숨을 죽이고 그가 편지 읽기를 기다렸다.

《승영아! 오늘 이 순간에도 미국놈들과 지주놈들은 남녘 땅에서 남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를 다시 제놈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철천지 원쑤놈들을 쓸어 버리고 남반부 동포들을 하루 속히 해방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어찌하여 손에 총을 들었는가를 똑똑히 알고 남보다 곱절 군무에 충실하고 당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군인으로 되리라 믿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 부디 몸 건강하여라.》

승영 동무는 편지를 다 읽었다. 둘러 앉아 묵묵히 듣고 있던 병사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집합을 알리는 힘찬 나팔 소리가 들려 왔다. 병사들은 저마다 굳게 총을 쥐고 대렬을 지었다.

독자 문예

야간 대학으로 가는 길

혜산 제지 공장 김 윤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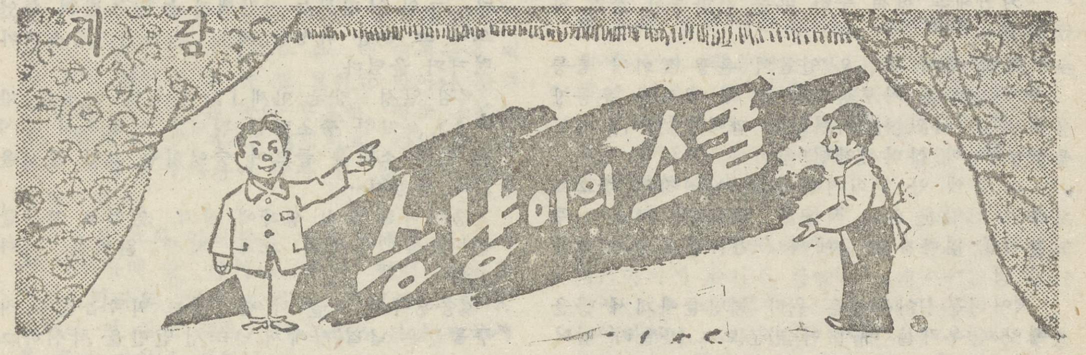
하루 일 호뭇이 끝마친 저녁
벗들과 어깨도 나란이,
나는 이밤도 야간 대학으로 간다.

붉고 푸른 용접의 불꽃
번뜩번뜩 구내에 피여 나고
둥근 달을 머리 우에 이고
벽체를 치여드는 기중기
이밤도 잘 배우라 손을 젓누나,

온통 노을처럼 붉게 타는
공장 지구의 밤'거리
대학 정문에선 전등'불이 반짝이며
우리를 부르누나

어서가자! 일하며 배우는 기쁨을 안고
밤마다 가고가도 지칠줄 모르는
진정 좋구나! 배움의 저녁과 저녁은…

조국이여! 한껏 배우리라.
그대가 우리의 어깨 마다에 지워준
공산주의 락원의 건설,
우리의 성스러운 로력
창조와 혁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리라.



신 흥 순

을녀 (부르는 소리) 갑돌 동무!

갑돌 오. 을녀 동무!

을녀 여기 있는걸 여때껏 찾아 다녔지. 그새 어딜 갔다 왔나요?

갑돌 어딜 갔다 왔느냐구요. 저 미국엘 갔다 왔지요.

을녀 뭐 미국에요?

갑돌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똑똑히 알았으니 갔다 온거나 마찬가지지 뭐야요.

을녀 응 미국에 대한 얘기, 그런걸 가지구…

을녀 그래 어떤 얘길 들었나요.

갑돌 미국은 말입니다. 사람 보다도 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래요.

을녀 사람 보다 개를?

갑돌 미국놈들은 글쎄 흑인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는군요.

을녀 그래요 참, 남조선에 온 미국놈들 보지요. 어디 흑인허구 같이 나다니나요.

갑돌 자기 나라에선 더 하대요, 흑인은 백인이 쓰는 극장이나 식당, 경기장엔 절대 못들어 가게 돼 있구 기차나 뻐스, 전차, 기선 같은 것도 같이 못타구, 학교두 흑인만 따로 다니게 돼 있답니다.

을녀 사람은 다 마찬가진데 얼굴 빛이 검다는 걸로 그렇게 천대를 하는군요.

갑돌 속이야 그 놈들이 꺼멓지요. 그런데 공원에까지도 《흑인은 출입 금지》란 패쪽이 붙어 있답니다.

을녀 그래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갑돌 글쎄 미국 어느 식당에서 개가 한마리 들여왔는데 말입니다.

을녀 개가 식당엘요?

갑돌 그래 식당 주인이 보구서 《아니 이게 어떤 놈의 집 개냐?》하고 몽둥이로 때려 내 쫓을려구 하니까 거기 있던 뚱뚱한 자본가가 《여보! 뭘 그래!》 그래서 식당 주인이 《네 나리'님 우리 식당에는 글쎄 흑인도 못들어 오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어서…아까도 여기 들어 온 흑인을 두명이나 경찰에서 잡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놈의 개가…》

《그렇지만 개가 못들어 온다는 법령이야 없잖는가?》

《하지만 나리'님, 이 개는 검정 개가 돼놔서 흑인이나 마찬가지로 똑 같이 취급해얍지요.》

《뭐가 어째?》

《아니 그럼 이 개는 댁의 갭니까?》

《그래 이 개로 말하면 미국 상원 의원 윌리엄 각하로부터 금강석 목걸이까지 선물 받은 유명한 우리 쟈크란 말일세.》

하니까 식당 주인이 《아 그렇습니까?》하면서 그 개한테 넙죽이 인사까지 하더니만 《아 이거 쟈크씨 그런줄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멍멍!》(개짖는 소리)

《아 아이구 짖는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십니다. 노여하지 마시고 저 상석으로 올라 가시죠. 헤헤》

이러더라는 겁니다. 허, 허, 허.

을녀 호, 호, 호, 나중엔 원…

갑돌 글쎄 미국의 실업자들은 자금 일'자리가 없어 밥을 굶고 병들어도 약 값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돈 많은 자본가들 집에서는 수만 딸라를 들여 개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해 준다, 발목에는 번쩍이는 금강석 장식, 나중엔 개가 자는 황금 침대까지 해 놓았대요.

을녀 그런 놈들이니까 남조선에 와서 그따위 행패를 하지요, 사람을 총으로 죽이구서도 《오우 꿩인줄 알았습네다.》

갑돌 말할 거 없지. 그놈들이 다 《깽》 패들이니까.

을녀 《깽》?

갑돌 《깽》두 몰라요, 사람을 마구 때리구 죽이구 강도질 하는걸 말입니다.

을녀 오라 악한들 말이지요?

갑돌 그럼요, 미국에선 말입니다. 살인 사건이 58분에 한건씩 일어나구, 강도 사건은 6분에 한건, 폭행 사건은 4분에 한 건, 절도 사건은 1분에 한 건…

어쨌든 범죄 사건이 15초에 한 건씩 일어 난다니 말할게 있습니까.

을녀 15초에 한 건? 그럼 눈 깜박깜박할 새마다 한 건씩 때리구 죽이구 훔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갑돌 오죽하면 〈살인 회사〉까지 있겠나요.

을녀 살인 회사요?

갑돌 비밀로 사람을 죽이는걸 맡아 가지구 돈 벌이 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을녀 아니 그럼 회사에서 돈을 받아 먹구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갑돌 글쎄 그렇다니깐요. 그 회사의 본점은 워싱톤에 있구 여러 도시마다 지점들이 있는 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놈들이 자그만치 4 만 명이나 된답니다.

을녀 뭐 4 만 명이요? 어유.

갑돌 그런데 이 회사에선 선거 때 돈을 제일 많이 번답니다.

을녀 선거때요?

갑돌 왜 그런가 알아 봤더니 같이 립후보한 상대방을 깜쪽같이 없애 치워야만 자기가 당선이 되겠거던요.

을녀 옳지 그래가지군 당선이 된 담에 권력을 써서 돈을 긁어 모을 작정이지요?

갑돌 〈여보소 사장, 부탁하나 합시다.〉하고 어떤 신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할라치면 회사 사장이 벌써 알아 차리고

〈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 누구겠소! 이번에 나허구 맞서 립후보를 한 죤슨이란 자지.〉

〈네 그 집에서는 사나운 개가 세 마리나 있는데다가 경비원이 수십 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 보통 료금 가지고야 안 됩지요〉.

〈하여튼 값은 달라는대로 낼테니 오늘 중으로 깜쪽같이…알았소?〉

〈네네〉

을녀 …정말 미국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일이로군요.

갑돌 그런데 이번엔 또 그 죤슨이란 자가 찾아 와서는 방금 신청을 하고 간 그 스미스란 놈을 해 치워 달라는 거야요.

을녀 호 호 호. 서로 잡아 먹기로군요.

갑돌 〈여보시오. 나의 선거 경쟁자 스미스란 놈을 당장 없애 치워주시오.〉

〈네 그럼…3천 딸라만 내십시오.〉

〈아니 왜 이리 비싸우? 어?〉

〈네 방금 그 스미스가 와서 당신을 암살해 달라구 특별 료금을 내구 갔으니까요.〉

〈뭣이? 어쨌든 값은 고하간에 당장 손을 써주오.〉

을녀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낸 놈이 죽을 판이로군요?

갑돌 그런것도 아니지요. 량쪽에서 돈을 받아 먹구는 립장이 곤난하니까 그런땐 두놈을 다 죽여 버린대요. 허 허 허.

을녀 호 호 호. 정말 미국은 〈깽〉의 나라로군요.

갑돌 말할거 있나요? 미국 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다 시킨답니다.

을녀 학교에서 까지요?

갑돌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범은 개를 잡아 먹고, 개는 여우를 잡아 먹고 여우는 매를 잡아 먹고, 매는 새를 잡아 먹고 새는 거미를 잡아 먹고, 거미는 파리를 잡아 먹는다. 이와 같이 강한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품이니라.〉

을녀 그러니까 자본가가 로동자들을 착취하는게 당연하단 말이지요.

갑돌 이게 승냥이 법칙이지요.

을녀 이게 승냥이 법칙?

갑돌 어려서부터 이런것만 배우고 맨날 보고 듣는게 살인 강도질이니까 애들 하는 것도 전탕 〈깽〉 식이지요.

글쎄 어디선가는 말입니다.

을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갑돌 어느 한 백만 장자의 집에 협박장이 하나 날아 왔단 말입니다.

을녀 협박장?

갑돌 〈래일 밤 12시 정각에 현금 100만 딸라를 가지고 뒤'산 큰 소나무 아래로 올것. 만약 안 가지고 오면 너의 생명을 빼앗을테다.〉

을녀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갑돌 그래 백만 장자가 한편 경찰에다가 내신을 해 놓고는 그날 밤 돈을 가지고 그리로 갔단말입니다.

을녀 그래 어떻게 됐어요.

갑돌 가보니 아니나 다를가, 검정 수건으로 잔뜩 얼굴을 가린 강도가 권총을 들고 척 나서더니 〈거기 놓구 가란 말야〉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을녀 그래서?

갑돌 그때 미리 매복해 있던 경찰대가 와—하구 달려들어 강도놈을 잡아 가지고 검정 수건을 쑥 벗겨 보니까 하 이건!

을녀 왜요?

갑돌 그게 누군고 하니 바로 그 백만 장자의 아들놈이였단말입니다. 허 허 허.

을녀 호 호 호. 참말 엉뚱하군요. 그래, 저 아범이 화가나서 막 욕을 했겠군요?

갑돌 욕이 다 뭐야요? 외려 칭찬을 하더래요.

을녀 칭찬을 해요? 뭐라구 말이에요?

갑돌 〈과연 용감하고 꾀가 있는 내 아들이로다. 그만한 솜씨면 능히 로동자도 부릴수 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을테니 자본가의 자식으로써 훌륭한 자격이 있도다. 허허〉

을녀 정말 승냥이 식이로군요. 그런 미국 놈들이 우리 남조선 땅에 와서 지랄을 하니…

갑돌 그런 승냥이를 집안에다 둬서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지요. 그러기에 전번에 남조선 대학생들도 미국놈을 반대해 들구 일어나지 않았어요.

을녀 옳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미국놈들을 내 쫓아야 해요.

갑돌
을녀 우리 조국 땅에서 하루 바삐 미국놈을 몰아냅시다.



(시)

한 맹원증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서…

김 학 연

이것은 다만 하나의
증표만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나의
한 동지의 유물만이 아니다.

나의 눈앞에서 지금
기'발처럼 나붓기고 있는 이것은,
이것은 생명을 지닌 것…우리와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너에겐 씌여 있었다,
너의 젊은 주인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 밑에선
너의 주인이 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불에 끄슬은



한 전사의 맹원증.
얼마나 험준한 나날을 넘어 왔나.
얼마나 먼 길을 달리여 왔나!

울부짖는 포화를 헤치며
원쑤를 무찔러 온 너.
승리한 땅우에 락원을 세우며
창조의 나날을 걸어 온 너.

자랑하노라, 그대 걸어 온 길
내 젊음에 걸어 온 길임을…
나의 품에 간직된 그것이
그대와 함께 내내 숨쉬고 있음을.

자랑하노라. 그것은 그전날
장백과 백두의 공청원 투사들이
오늘에 넘겨 준, 우리품에 안겨 준
청춘의 자랑, 충성의 뜨거움!

그 자랑 가슴에 불태우며
너의 주인이 또한 남기고 간
그 발'자국, 그 숨'결
영원하리라 당을 따르는 청춘 대오에…

지상 강좌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

심 상 진

인류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며 계급 투쟁은 곧 인류 력사를 발전시키는 추동력이다. 그리고 계급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여 온 모든 계급 투쟁 가운데서도 인류 력사의 마지막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은 력사를 무계급 사회로 전진시키는 거대하고 위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 자체 내의 모순들로 말미암아 필연코 멸망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면서 로동 계급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천명하였다.

그러면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온 지구 상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대중을 해방시키는 세계사적 과업을 담당 수행하는 데 있다.

모든 계급 사회가 그러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도 역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이다 때문에 그러한 사회 제도 하에서는 적대적 계급에로의 사회의 분렬, 지배와 억압,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불가피하다.

로동 계급에게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류 력사상에서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압박과 착취가 없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숭고한 력사적 사명이 부과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계급 투쟁에서와 같이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계급 사회로부터 계급이 없는, 따라서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는 사회—공산주의 사회로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사회의 물질 생활 뿐만 아니라 민족들 간의 온갖 적대적 관계,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정신 생활에서의 적대적 관계도 종국적으로 청산하면서 모든 사회 성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 나간다.

그러면 왜 로동 계급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력사적 사명이 부과되였는가?

그것은 다른 계급에게가 아니라 바로 로동 계급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르죠아지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사회의 착취 계급보담도 더 철저히 머리부터 발톱까지 무장하고 있다. 오직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철저하게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계급만이 자본주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로동 계급은 모든 계급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이것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처하고 있는 그의 계급적 처지와 관련되여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에게는 보호해야할 자기의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며 혁명 투쟁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오직 철쇄 밖에 없는 무산 계급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계급이다.

과거 일제 통치 시기나 오늘 미제 강점 하의 공화국 남반부 로동 계급의 처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박탈 당한 로동 계급은 혹심한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시달리는 임금 노예의 처지를 면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이러한 계급적 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온갖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새 사회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가장 혁명적으로 진출케 한다.

로동 계급의 혁명성은 또한 그가 근대적 대 산업과 련결되여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여 있다.

로동 계급은 주로 현대적인 대 규모 공장, 기업소들에 집결되여 수백, 수천, 수만 명씩 집단적으로 로동하는 것 만큼 서로 밀접한 련대성을 가지며 다른 어느 계급 보다도 단결 되기 쉽고 조직되기 쉽다.

또한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 대렬이 부단히 장성 강화된다.

대 자본가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몰락된 중소 기업가 상인들과 수공업자들,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및 계급 분화와 관련하여 파산된 농민들이 부단히 로동 계급의 대렬을 보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로동 계급의 대렬은 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성 강화된다.

그들은 로동 과정에서와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각성되며 단련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은 과거에 식민지 조건하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2중 3중으로 당하여 왔기 때문에 그의 혁명성이 더욱 강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그의 발생 초기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에 집중되여 로동하였으므로 조직성과 단결력이 강하였으며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전투적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 로동 계급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혁명성과 함께 서구라파의 로동 계급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혁명적 기질를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부르죠아 혁명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상 의식의 잔재가 비교적 적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 의식은 순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독특한 혁명적 기질은 구라파에서와 갈

"청년 생활" 소사전

계급 분화

한 계급의 내부에 변화가 발생하여 그 일부 성원들이 본래의 계급 이외의 다른 계급의 성원 또는 다른 사회층으로 전화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생산자들인 농민들 속에서 생산 조건이 보다 유리한 농민들은 농촌 부르죠아지 즉 부농으로 전화되며 반면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빈농으로 전락되던가' 혹은 파산되여 고용농으로 되던가, 도시로 몰려 나와 로동자로 전화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소 자본가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 간의 맹렬한 경쟁으로 인하여 소수의 대자본가들의 수중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는 반면에 생산 조건이 불리한 수 많은 중소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몰락되여 프로레타리아의 대렬에로 떨어지고 만다. 이러한 현상을 계급 분화라고 한다.

반(半) 프로레타리아

농촌 빈농을 가르켜 말한다. 빈농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동시에 부농에게 고용되거나 농한기를 리용하여 품팔이 하여 근근히 살아 간다. 그러나 빈농은 로동자와는 달라서 아주 적

이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며 그의 계급적 의식을 부르죠아 사상으로 마비시키는 우익 사회 민주주의의 사상적 지반이 없었다는 사상과도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는 로동 계급이 발생 발전하던 초기에 사회 민주당과 같은 기회주의적 당이 없었기 때문에 로동 계급 속에 흐리 멍텅한 각종 개량주의적 사조들이 류포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발생 시초부터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견결히 나설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그 혁명성은 비할바 없이 강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력사적 사명을 담당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러나 로동 계급은 자기 혼자서는 계급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자기 앞에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 대중과의 확고 부동한 계급적 동맹을 맺어야 하며 그 동맹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과 튼튼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로동 계급이 다른 모든 근로자 대중과 리해관계에 있어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로동 계급뿐만 아니라 광범한 근로 대중이 지주, 자본가, 고리 대금업자 등으로부터 착취와 압박을 받는다. 이들은 다 같이 피착취 계급이며 피 압박 계급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다른 모든 계급 및 계층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튼튼한 동맹이다.

농민은 나라의 주민 구성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찾이한다.(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과거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국가인 경우는 주민의 절대 다수를 농민이 찾이 한다)

원래 농민은 봉건 제도 하에서 봉건 령주(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던 계급이며 자본주의 하에서도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는다.

때문에 농민은 그의 계급적 처지로 말미암아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농민은 고농, 빈농, 중농, 부농 등 여러 층으로 구분된다.

고농은 농촌 프로레타리아트를, 이루

은 땅이나 또는 약간한 생산 수단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빈농은 한편으로는 소소유자인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임금 로동자와 같이 자기의 로동력을 팔기 때문에 그들을 반(半) 프로레타리아라고 한다. 반 프로레타리아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된다

무산 계급

프로레타리아트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들에게 자기 로동력을 팔아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로동 계급을 말한다. 농촌의 고용농도 무산 계급에 속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제 국가 로동 계급은 벌써 무산 계급이 아니다. 그들은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그들 자신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개량 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사소한 개량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대신하려는 정치적 조류로써 맑스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적 리익에 적대되는 사상이다. 개량주의는 19 세기 후반기

고 있으며 빈농은 농촌의 반(半)프로레타리아라고 말할 수 있다.

중농은 토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역시 직접 간접으로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는다. 부농은 착취 계급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될 수 없으며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고농, 빈농, 중농들과 동맹을 하게 되며 그 중에서는 고농, 빈농과의 동맹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농민은 발전하고 장성하는 계급인 것이 아니라 부단히 계급 분화를 이르켜 쇠퇴하는 계급이며 자기의 소소유자적인 2 중적 성격으로하여 독자적으로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할 수 없다.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를 받으므로써만 착취로부터 자신을 영원히 해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농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은 보다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 하에서 계급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계급적 압박과 함께 민족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이 이러한 2 중, 3 중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계급 투쟁과 함께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 나라 로동 계급 앞에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력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일체 애국적 반일 력량의 선두에 선 혁명의 령도 계급으로서 반제 반 봉건적 해방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로동 계급을 위시한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1930년 대에 이르러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섰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빨찌산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15 개 성상의 영웅적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직 로동 계급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해서만 발톱까지 무장한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으며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비로소 주요 생산 수단과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조선 로동당의 지도 하에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과 사회주의 혁명을 빛나게 수행함에 있어서 령도적 역할을 놀았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 앞에는 전체 조선 인민과 더불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 사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한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들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다.

에 발생하였는데 그의 사회적 기초는 자본가들에게 매수된 로동 계급의 상층부이다.

개량주의자들은 계급 투쟁을 부인하며 로동 계급과 자본가의 협조를 주장하면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한다.

오늘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의 력량을 통일하고 강화하면서 개량주의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하늘을 찌를듯 아아히 솟은 부전령 밑에 신흥군 동흥 농업 협동 조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조합에는 한 명자라는 처녀 작업 분조장이 일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 처녀가 마음도 곱고 일도 잘 하는지 원근 동리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명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나온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 년 간이란 세월을 단 한번의 결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에서 마른 일, 진 일을 가리지 않았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항상 자진하여 앞장서군 하였다.

그는 조합 일을 위해서는 그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금년도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가 한창 벌려지고 있던 지난 봄날에 있은 일이다.

조합에서는 랭상모에 쓸 자재가 일부 모자라서 애를 먹었다.

그때 명자네 집에는 퍽 오래전부터 간직해 오던 재목이 있었다. 그것은 장차 집을 보수할 때 쓰려고 장만해 둔 것이였다.

명자는 자기 집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 하였다.

《집은 지금 당장 수리할 것두 아니구 아직 시일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농사 일에는 시기가 있어요. 랭상모가 자재 때문에 늦으면 얼마나 큰 일이예요.》

《글쎄 그런 일에 쓴다니 좋기는 하다만 그게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마련한 재목이라구…》

옆에 앉았던 고모가 이렇게 말했다.

그 나무는 이미 돌아가신 명자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에 마련했던 것으로 벌써 몇해째 간직해 온 귀중한 재목이였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명자는 결연히 머리를 들고 말했다.

《이 나무를 조합 일에 쓴다면 아버지도 몹시 기뻐할거예요. 얼마나 옛날엔 못 살던 아버지였어요.》

그 길로 명자는 창고에 들어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재목들 중에서 기중 좋은 것으로 골라 소달구지에 싣고 조합에 갔다. 그는 조합 간부들에게 간청하였다.

《이것으로 랭상모 문짝을 만들어 주세요.》

조합 간부들은 그의 소원을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가장 애로로 되였던 랭상모 자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열마 전 당이 제시한 《15 일 전투》의 과업을 받들고 가물과의 투쟁이 한창이던 때에 있은 일이다. 온 조합이 들끓어 번졌다. 린근 도시에서 로동자들과 사무원들도 달려 왔었다. 그 바람에 평지대의 논밭들에는 물을 댔으나 산'골짝 밭들만은 아직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웠다. 그런 곳에서 바삭바삭 말라 드는 곡식들을 볼 때마다 명자는 자기 심장을 저며 내는 듯 가슴이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염상'골 골짜기에서는 괭이질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명자 동무였다.

그는 낮에 마을 로인들로부터 옛날 이 골짜기에 샘'줄기가 터진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옛날에 샘'줄기가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하나마 이런 생각을 하니 도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괭이를 들고 골짜기로 오른 것이다.

과연 그가 한식경이나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 어찌 이런 때의 기쁨을 이루 형용할 수 있으랴! 물은 삽시간에 그가 파 놓은 구덩이로 충충 고여 올랐다. 명자는 쉬지 않고 염상'골 밭들에 도랑을 째기 시작하였다. 미구하여 물은 밭으로 흘러 들었다. 훤한 새벽'빛 속에 줄줄 흘러 가는 물을 굽어 보는 그의 얼굴엔 밤새 일한 피곤도 말끔히 가시고 함박 같은 웃음이 피여 올랐다.

명자 동무는 자기의 분조원들을 언제나 한 사람같이 합심시키고 그들을 동지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남달리 애쓰는 동무다. 그는 남의 일을 제 일 처럼 여기고 항상 그들이 곤난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애쓴다. 일하는 짬짬에 땔 나무를 하여 두었다가 돌아가는 길에 슬그머니 후방 가족들 집 마루에 쌓아 놓기도 하고 밤을 밝혀 틈으로 널판자를 짤라서는 거름 함지도 만들어 분조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의 작업 분조에는 한 일룡이라는 로인이 있는데 아들들은 모두 군대에도 나가고 외지에도 있어서 집에는 두 늙은이만 있다. 그래서 그 집은 언제나 일'손이 모자랐다. 어느 날 밤 조합 일이 필한 후 명자는 달구지를 몰고 그 집으로 갔다.

《할아버지! 아직 방아를 찧지 못했다지요. 제가 찧어다 드릴테니 벼'섬들을 내다 여기에 실읍시다.》

《원 정신이 없군…이 밤중에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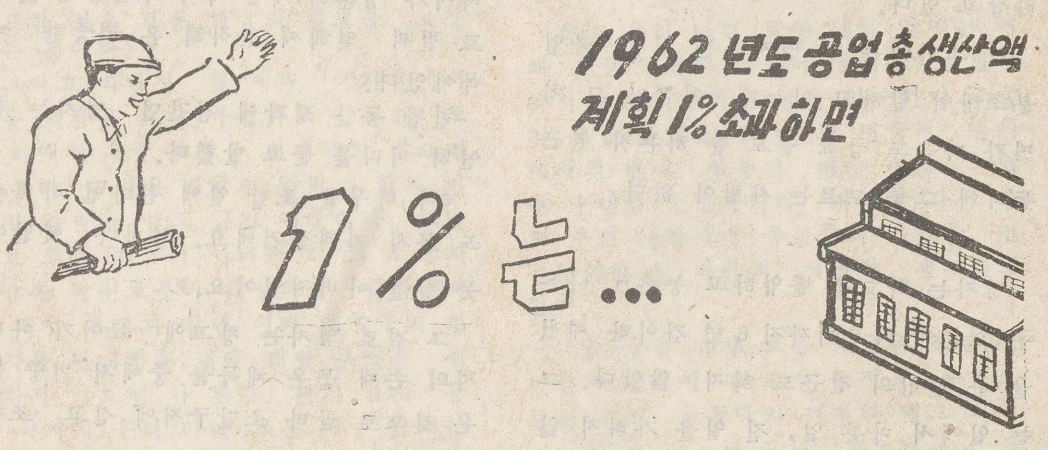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굳이 마다했으나 명자는 우겨서 벼'섬들을 걷어 싣고 10 리나 되는 동홍'골에 가서 그 밤으로 벼를 찧어다 드렸다.

일이 이렇게 되니 그들의 열성인들 어찌 높아지지 않겠는가? 모든 작업 분조원들이 명자를 두고 《우리 작업 분조장》이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다.

이런 집단에서 일이 안 될리 없다. 지금 이 분조에서는 벌써 논에서만도 다섯벌 김매기를 끝냈다. 그들은 금년도의 알곡 생산 과제를 122 %로 초과 수행할 결의 밑에 모두가 한 덩어리처럼 되여 투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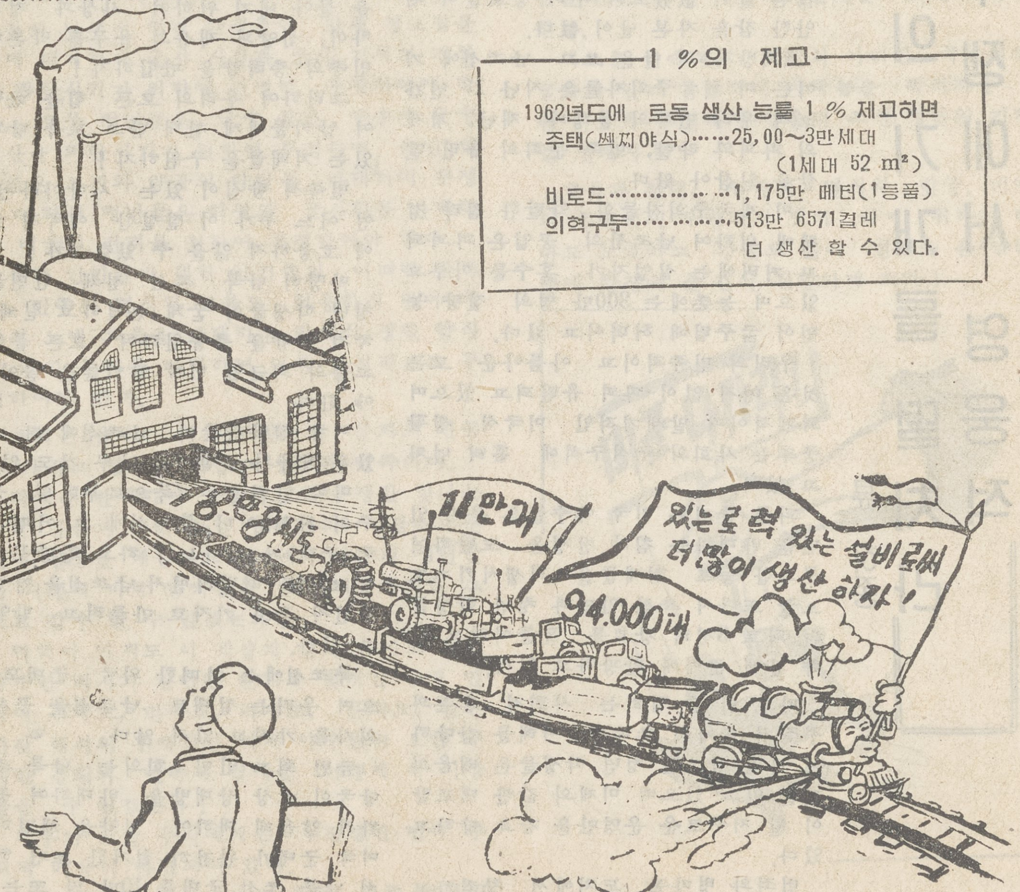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명자네 작업 분조는 이곳 조합원들의 앞장에 서고있다.

본사 기자 한 희만



1 %의 절약

전 력	1%를 절약하면	강철 10만 톤, 류안 비료 26,000 톤,
강 재	〃 〃	천리마호 뜨락또르(15마력으로 환산) 3,585대, 자동차 2,728대, 에쓰 유 선반 (50형) 5,130대를 더 생산할 수 있다.
석 탄	〃 〃	78,000 세대가 1 년간 사용 할 수 있다.
세멘트	〃 〃	도시 주택 3,100 세대 (45m²)
목 재	〃 〃	옷장 207,000대, 농촌 문화 주택 11,000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



1 %의 제고

1962년도에 로동 생산 능률 1 % 제고하면

주택(쎅찌야식)	……25,00~3만세대 (1세대 52 m²)
비로드	……1,175만 메터(1등품)
의혁구두	……513만 6571켤레

더 생산 할 수 있다.

반미 구국 투쟁에서 영웅적 조선 청년의 기개를 떨치라

류 하종

지금 우리 조국 남녘 땅은 간악 무도한 미제 침략자들의 군화 밑에 짓밟혀 몸부림 치고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미제 야수들의 민족적 모욕과 학대, 기아와 빈궁의 절정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양키들은 매일 매시각 우리 동포들을 학살 릉욕하고 있으며 그들의 재산을 략탈 파괴하고 있다.

바로 이 시각에도 파주와 평택에서, 양주와 인천에서, 서울과 대구에서, 아니 남조선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 형제들이 양키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카빙총의 과녁으로 되고, 곤봉으로 구타 당하고, 머리를 깎이우고, 군견에 물어 뜯기우고, 차바퀴에 깔리우고 있는가!

미제 승냥이들이 그 더러운 발'길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우리 동포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우리 동포들이 편안한 잠을 자본 날이 없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17 년간 오직 우리 민족의 불행과 재난, 경제의 파괴와 략탈, 민족 문화의 유린 말살을 일삼아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공업은 파괴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농촌에는 300만 명의 절량 농민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의 민족적이고 아름아운 모든 것은 여지 없이 파괴 유린되고 있으며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 풍조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고 있다.

피를 즐기는 미국 야수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무고한 동포 형제들을 희생시키고도 오늘 또다시 조선 인민과 청년 학생들의 피로 3천리 강토를 물들이려고 침략 전쟁 준비에 발광하고 있다.

바로 이 숨 막히는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감당하여 나갈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배움의 길을 잃고 있으며 미제의 값싼 대포밥이 될 저주로운 운명만을 강요 당하고 있다.

범죄와 병마는 도처에서 창궐하고 피를 팔고 몸을 팔아도 먹고 살 수 없어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몸서리치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암흑의 땅—모든 것이 썩고, 병 들고,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살길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조선의 참담한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17 년 간에 걸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이다.

양키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지 않는 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재난과 고통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은 명백하다.

이 나라 남북 삼천리가 양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일어서야 할 엄숙한 시기에 3 천만의 한결 같은 심정을 대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과거를 따지지 말자.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사상과 정견의 차이, 신앙과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민족의 총력량을 단합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단합하여 양키들에게 천대 받고 모욕 당하고 있는 겨레들을 구원하자!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이 절절한 애국적 호소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굳게 단결하고 일체 애국적 력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 양키들을 몰아 내야 한다.

미국 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더 남아 있을 리유와 구실이란 아무 것도 없다.

미국 양키들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이니, 북조선에 그 어떤 《외국 군대》가 있다느니 하고 황당무계한 헛 소리를 떠벌리면서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 군사 기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다.

북조선에는 어떠한 외국 군대도 없으며 우리는 절대로 남조선을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금번 최고 인민 회의는 남북 조선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 하에서 남북 조선 군대를 1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금번 최고 인민 회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호상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 일관 조선에서 평화의 유지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표시이며 민족의 장래를 위한 숭고한 동포애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최고 인민 회의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남조선 동포들을 양키들의 피 묻은 군화 밑에 계속 짓밟히게 한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며 후손 만대를 두고 씻을 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국 양키들을 몰아 내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 구국 투쟁에서 더욱 용감하게, 더욱 견결하게 참가하여야하며 남북간의 협상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강제 징소집을 반대 배격하며 군사 시설과 군사 기지의 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로동 청년들은 군수 물자 수송과 군수 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농민 청년들은 토지와 량곡의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학생 청년들은 학원의 군사화를 반대하여 배움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양키들의 어떠한 만행도, 민족적 멸시와 모욕도 허용하지 말며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고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를 반대하여 더욱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외적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빛나는 애국 전통과 특히 항일 유격대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어떻게 미국 양키들의 식민지 통치를 그대로 감수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아직도 이 세상에 생겨 나기도 전에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인 우리 민족이 조국도, 민족도, 력사도, 문화도, 없는 한갖 해적의 후예들인 미제 야수들의 오만 무례한 전횡과 민족적 멸시를 어떻게 이 이상 참을 수 있겠는가!

더우기 오늘 우리에게는 무진장한 민족 주체적 력량이 마련되여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우리 민족 전체의 장래 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여 있다. 청년들은 마음껏 배우며 일하며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재능을 이바지하는 기쁨과 긍지, 생활의 랑만으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북반부 전체 청년들은 결코 자기들만 행복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도 돌려 주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당신들은 적수 공권으로 리 승만 파쑈 독재의 아성에 육박하던 4월의 그날과 같이 미국 양키들의 오만 무례한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반대하는 투쟁의 봉화를 들었다.

우리들은 지금 당신들의 그 붉은 심장에 활활 타오르는 애국의 불'길을 보고 있으며 미국 양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보고 있다.

우리 남북 조선 청년 학생들의 뜨거운 손'길을 굳게 마주 잡자!

오직 투쟁만이 승리를 약속해 준다! 미국 놈들에게 조선 청년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대오를 결속하고 적들의 어떠한 폭압에도 굴하지 말고 용감하게 미국놈을 족치자! 반미 구국 투쟁에서 영웅적 조선 청년의 기개를 떨치자!

굴욕과 천대, 민족적 멸시와 빈궁, 기아와 무권리의 구렁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바다도 노호하고 강물도 끓어 번지는 온 남녘 땅에 항쟁의 불'길이 뒤덮이게 하라!



청년시절과 학습

기초 리론 과목 학습에 주목을!

평양 기계 대학 학장 한 동 식

금년도에도 각지 생산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각종 훈장과 메달, 천리마 휘장들이 빛나고 있다.

그들의 모두가 생산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일한 동무들로서 선발 추천되여 과학 탐구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금 이들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투지로 충만되여 있으며 당에서 맡겨준 전투 임무를 충실히 그리고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투에 뛰여 들었다.

새학기가 되여 얼마되지 않지만 벌써 우리는 그들에게서 학습에 대한 불타는 정열과 강한 의지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가 벅찬 현실 속에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동무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학습에서도 모범이였고 의지는 철석처럼 굳었다. 그들은 학습에서도 로동 계급의 전투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거개가 우수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리론적으로 파악한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풍부한 것이다.

이런 동무들은 초기에는 성적이 뒤떨어지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단연 앞장 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년도 신입생들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는바가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를 이야기 하려 한다. 그것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학습에서 더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의 금년도 입학 시험 성적을 보면 자연 과학의 기초 리론 과목에서 대체로 약했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기초 리론 과목을 잘 모르다나니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느라고 다른 리론 과목 학습에서 뒤떨어지기 쉬웠고 또한 전반적 과목 습득에서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일하면서 자기 전문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동시에 기초 리론을 이에 배합한다면 기술 혁신에서의 커다란 성과는 물론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연 과학의 기초 리론 과목 학습을 하기는 대단히 곤난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하면서 기초 리론 과목을 원만히 습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습을 계획적으로 완강하게 진행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실례들을 알고 있다.

금년도 우리 학교 금속 공학부에 입학한 김 동무의 경험은 참으로 긍정적이다. 즉 그는 초중을 졸업하고 공장에 진출하였다. 그는 자습으로 고중 졸업 정도의 기초 리론 과목 지식을 소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우선 해당한 교과서들을 전부 구입하였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시간 배정표를 만들고 완강하고 장기적인 전투를 진행하였다. 그는 모를 것이 있으면 현장 기사들을 찾아다니며 배웠다. 그리하여 3 년 만에 고중 과목들을 완전히 뗄 수 있었다.

문제는 생산 현장에 있는 기간 기초 리론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기초 리론 과목 중에도 무엇을 잘 알아야 하는가?

기술 대학 지원자들은 무엇보다도 수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 비록 높은 수학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식과 기본적인 정의와 원리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수학만 해결되면 그와 련결되는 과목들 즉 력학, 물리 등등 과목들도 자연히 풀리게 된다.

다음으로 이야기 할 것은 어학 지식도 일정한 정도로 준비되여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 과학 기술을 급속히 섭취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모국어를 잘 학습하며 또한 외국어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 나라 말에 대한 학습을 등한시 하며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잘 리해 못하며 옳게 쓰지 못하는 결함들이 있는바 이것은 전반적인 과목 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어 학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모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초보적인 문법 학습도 중요하며 문예 서적, 잡지들을 일상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년도 입학 시험을 끝마치고 느낀 점들에 대하여 몇마디 이야기하면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하면서 학습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과학 연구 사업을 하는 데는 탄탄한 대로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정한 곤난과 애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험한 산'길을 굴함이 없이 그 곤난과 난관을 타개하면서 걸어 나아갈 줄 아는 사람만이 과학을 탐구할 수 있으며 광휘로운 명마루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글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너무 욕심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말고 하라…》

(연암 박 지원)

맑스는 어떻게 학습하였는가



맑스에게 있어서 즐겨하는 일은 독서하는 것이였다. 서적은 그에게 있어서 걸치레가 아니라 정신적 도구였다. 《책은 나의 노예이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대로 나에게 복무해야 한다.》

맑스는 독서하는데 책장 귀퉁이를 접기도 하고 여백에 연필로 무슨 부호를 가득 적어 넣기도 하고 글'줄에다 선을 긋기도 하였다. (이것은 필요한 개소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였다.) 만일 저자가 그릇된 것을 썼을 때에는 도처에다 의문부와 감탄부를 찍었다. 그는 비상히 예민하고 정확한 자기 기억 속에다 노트나 서적에 표를 해두었던 개소를 확실히 넣어 두기 위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간 후에도 다시 그것을 읽어 보는 습관이 있었다. 맑스는 기억력을 배양하는데 관심을 많이 돌렸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를 암송하면서 기억력을 련마하였다.

☆

맑스는 시와 희곡 작품을 좋아하였으며 소설의 애독가였다. 그는 쉑스피어의 작품들을 각별히 애독하였으며 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쉑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가장 사소한 등장 인물까지도 알고 있었다.

가끔 맑스는 안락 의자에 누워서 소설을 읽군 하였는데 때로는 몇책씩 한번에 시작하여 그것을 번갈아 읽는 일도 있었다.

☆

맑스는 구라파의 모든 언어를 읽을 줄 알았으며 특히 3개국어—독일어, 불란서어, 영어—로 능숙하게 글을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언어들에 정통한 사람들이 감탄하여 마지 않을 정도였다.

맑스는 굉장한 언어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맑스는 년령이 50세가 지나서 로어 공부에 착수하였는데 이 언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년쯤 후에는 로씨아의 시인과 산문가들의 작품을 충분히 읽을 정도로 로어를 소유하였다. 그는 뿌슈낀, 고골리, 쉐드린을 높이 평가하였다.

☆

맑스에게는 정신적인 휴식을 위한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수학이였다. 그는 수학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대수는 그에게 있어서는 지어 정신적 위안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는 평온치 못한 자기 생활의 고통스러운 시각에는 대수에 달라 붙군 하였다. 그는 자기 안해의 마지막 병환 시에 정상적 과학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오직 수학에 몰두함으로서만 어느 정도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정신적 고민의 이 시기에 그는 무소한 소수의 계산에 관한 로작을 썼는데 그것은 거대한 과학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

맑스가 일생을 통한 자기 연구 사업의 장구한 기간에 성심 성의로 수집한 귀중한 책은 1,000여 권에 달하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불충분하여 그는 다년간 박물관에 열심히 찾아다녔다.

맑스는 항상 매우 늦게야 취침하였지만 그래도 아침 여덟시와 아홉시 사이에는 언제나 일어나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셨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서재로 들어가 밤 두시 혹은 세시까지 일하였다. 그는 다만 식사 후 잠간 휴식하고 낮에는 한두 시간씩 오침을 하였다. 맑스는 젊은 시절에 보통 온밤을 새워가며 일하군하였다.

맑스는 그의 불휴의 저작 《자본론》을 집필하는데 40년을 고심하였던 것이다.

— 《맑스 엥겔스 회상기》 중에서 —

력사 이야기

을두지의 기지



리 잡기

이 이야기는 고구려 3대 대무신왕 (기원 18~44) 11년 가을에 있은 일이다.

북녘의 산과 들에는 이미 가을이 깊었다. 위나암 련봉 높은 봉우리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으며 비류수에는 어느 사이에 기러기 떼들이 내려 앉고 강 기슭 갈발을 지나는 바람이 한결 서늘하였다.

밤이면 달이 밝고 찬 이슬이 내린다.

그런 어느날 밤이였다. 고구려 궁중에는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이닥치며 서북 변방 첩보사(통신을 빨리 전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가 뜻하지 않은 급한 소식을 전하여 왔다. 그것은 한(漢)나라 료동 태수(지방 봉건 령주 급의 관직)가 수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변강을 무찌르자 물 밀듯한 기세로 서울을 향하여 진공 중이라는 것이다. 고구려 궁중은 당황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왕은 마침내 군신을 소집하자 한 나라 군사에 대처할 대책을 물었다.

《이제 한병이 대거하여 쳐 들어 온다 하며 그 세력을 또한 감당할 길이 없는지라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할것인고? 경들은 모름지기 묘책을 내여 대적을 물리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라.》

왕은 그리고 나서 침통한 얼굴로 좌우를 돌아 보았다.

신하들은 왕의 룡상을 가운데 두고 량편으로 뭇별과 같이 늘어 앉았다. 대청 넓은 마루에는 밀초'불 촉대들이 황황히 빛나 낮과 같이 밝다.

이윽고 우보(고구려 시기의 최고 직관) 송 옥구가 왕의 앞에 나와 절하고 말했다. 《신이 듣건대 덕이 높은 자는 반드시 흥하고 힘만 믿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 나라 각지에 민란이 일어나 왕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료동 태수가 우리

나라에 임의로 쳐 들어온 것으로 아뢰니다. 그만큼 이번 적은 뿌리 깊은 힘을 가지지 못한자로 단정되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험준한 지형을 골라 적과 싸우는데 때를 헤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아뢰니다.》

그리고 그는 장기 항전의 길을 주장하였다.

그다음 좌보(역시 우보와 같이 최고 관직임) 을두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우보의 의견을 찬동하며 자신있게 말하였다.

《옛날부터 적은 힘을 가지고 강한 척하면 반드시 큰 힘의 밥으로 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뢰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에게 대함에 힘보다 계략을 쓰는 길을 취함이 옳을가 합니다. 그것은 적의 세력이 사납기가 도저히 정면으로 맞다들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러면 경의 계략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고.》

왕은 다잡아 물었다. 을두지는 다시 보충한다.

《이제 듣건대 적의 세력은 수십만에 달하며 또한 적은 그 힘을 믿고 승승 장구하여 오거늘 불과 2~3만의 우리 힘으로써 어찌 정면으로 그 창끝을 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만큼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이 닫아 걸고 때를 헤아리지 않고 싸우시되 적의 피로한 틈을 타서 이를 치면 반드시 성사할 것으 로아뢰니다》

그리고 그는 성을 굳게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궁중에서는 좌우 량보의 안이 통과되였다. 왕은 성안으로 군사를 집결 하자 문을 굳이 걸고 적을 대항하여 싸울 차비를 하였다. 성중 사람들은 누구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결심이였다.

한 나라 군사는 이어서 위나암성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수와 같이 밀려와 3 중 4 중으로 성을 포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 안팎에서 적아 간에 가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나라 군사는 승승 장구하여 밀고 온 길이라 그들은 그 기세로써 일거에 성을 무찌르려고 하였다. 그들은 성을 향하여 사면에서 화살의 비를 퍼부어가며 성벽으로 개미떼처럼 기여 올랐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한군의 공격에 대하여 성중에서도 창'대, 화살, 돌들을 가지고 반격하였으며 쇠'물과 뜨겁게 끓인 기름의 폭포가 쏟아졌다. 성우에는 이따금 가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다가도 고구려군의 쇠'물과 기름의 폭포가 한번씩 쏟아지면 성벽에 붙었던 개미떼들은 사태와 같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쇠'물에 타고 기름에 익었다. 한 나라 군사는 참패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 수십일에 걸쳐 한나라 군사는 엄중한 타격을 입었다. 성의 사방에는 그들의 시체가 무더무더기를 이루고 피는 흘러 개울이 되였다. 무수한 무기들이 불타고 부서져 그 가운데 시래기와 같이 엉켰다.

때 마침 늦은 가을이다.

위나암의 산과 들에는 이미 맵짠 바람이 불어와 싸움터는 한층 스산해졌고 밤이면 까마귀들이 모여 들어 제 세상과 같이 울부짖었다.

황량한 벌에는 다시 눈'발이 날렸다. 그러나 료동 태수는 여전히 군사를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성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도 벌써 무력만으로는 성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위나암성은 산상 바위 우에 서 있는 산성인지라 그만큼 얼마 동안이나마 성문만 막고 외계와 련락을 단절시킨다면 성중의 식량은 물론 우선 물이 없어서도 얼마 있지 않어 고구려군이 성문을 열고 나오리라고 기대하였다. 이제 태수가 믿는 것은 그것 밖에 없었다. 그러나 태수도 한편 초조한 곳이 없지 않았다.

그 보다 성안의 사태는 한층 더 급하였다. 그동안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성안에서도 벌써 적지 않는 손실을 입었으며 그들은 또한 싸움에서 지쳤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것이였다. 성안에는 사실 큰 우물이 없었으며 식량이 떨어진지도 이미 달포나 가까이 되였다. 병사는 누구나 기갈이 심하였다. 그들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마른 풀뿌리를 뽑았다. 이따금 내리는 싸락 눈이나 그려모아 겨우 갈증을 면했다. 물론 성밖과 아주 련락이 없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련락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고구려군은 그 이상 더 참기가 어려웠다. 왕은 끝내 비명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을두지, 송옥구를 비롯한 여러 신하를 부르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적은 아직 군사를 거둘 눈치가 보이지 않는데 성안의 사태가 이러하니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고.》

왕은 좌우를 돌아다 보며 큰 한숨을 쉬였다. 자리에는 다시 없는 침울한 기운이 떠돌았다.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가?》

왕은 다시 초조하게 말하였다. 이윽고 을두지가 입을 열었다.

《이렇지 않아도 신도 그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중으로 아뢰니다.》

을두지는 서두를 떼였다.

《저의 생각으로는 적의 장수에게 최후로 한가지 계략을 써볼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장에게 약간의 술과 수초(물에서 자라는 풀)를 곁드린 물고기를 마련하여 <위문> 차로 보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허(임금의 승인)를 기다려 실행하기로 하고 방금 성밖으로 련락을 하여 차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뢰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왕은 그 소리에 의아한 얼굴을 하였다. 을두지는 이어서 대답하였다.

《우보 송옥구의 말과 같이 난처한 경우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적도 기실은 제 나라의 동란에 초조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동안 우리한테도 적지아니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아직 싸움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성안에 물이 귀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만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는 더 싸움을 계속할 용기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시로써 술과 물고기와 수초를 보내자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듯한 생각이요.》

왕은 이에 찬동하였다.

을두지의 계교는 그날로 시행되였다.

왕은 료동 태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맑은 술 몇병에 물쑥으로 료리한 큰 잉어 안주를 끼워 선물로 보내였다.

《피차에 아직 칼과 창을 서로 맞겨누고 있는 사이며 장차의 승패를 헤아릴바 아니나 장군이 수만리 타국에서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악전 고투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 많은 장병을 이국의 산하에서 헛되이 까마귀 밥을 만들었으니 내 비록 장군과 창 칼을 맞대고 있는 사이라 하더래도 어찌 장군의 애달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리요. 삼가 변변치 못한 물건이나마 보내여 위로의 뜻을 대신할가 하는 바이요.》

그나마 편지는 야유로 일관되여 있었다. 고구려 왕의 편지와 선물이 한 나라 진중에 도달하였을 때다. 료동 태수가 왕의 편지와 함께 눈 앞에 술과 잉어와 물쑥을 보고나니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얼굴 빛이 변하였다.

《오, 성안에는 역시 물이 있었구나.》

그는 그 순간 그들의 기대가 헛된 꿈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다시 없는 통분한 얼굴을 하였다. 그가 물론 을두지의 기지를 알리는 없었다. 그것은 틀림 없는 잉어이며 물쑥이며 술이였다.

눈이 무섭게 내리는 밤 한 나라 군사는 고구려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견디지 못하여 많은 주검을 버리고 눈보라치는 료동'벌을 향하여 창황히 물러 갔다. 그들의 뒤에는 비참한 패배가 남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한 나라가 목숨을 걸고 달려든 그 싸움은 고구려 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료동—지금 중국 동북 심양 근방의 지대, 료하의 동쪽이라는 뜻.



정 다산 탄생 200 주년

정 다산의 애국 사상

허 종 호

다산(茶山) 정 약용(丁若鏞)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걸출한 실학자이며 열렬한 애국 사상가이다.

그는 1762년 8월 5일에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에서 량반 가문인 정 재원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렸을적부터 유교의 경전과 시문(詩文)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7 세 때에는 벌써 다음과 같은 한 시를 지였다.

적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다네
멀고 가깝기가 다른 까닭이지요.

학문에 대한 그의 실학자적 립장은 그의 청년 시기에 성호 리 익과 반계 류 형원의 저서를 읽으면서부터 그리고 초정 박 제가 등 당대 실학파의 이름 있는 학자들과 사귀면서부터 더욱 확고해져 갔다. 다산은 또한 중국과 서양의 선진적 사상과 자연 기술 과학의 성과들도 정력적으로 연구하였다.

다산은 선행 실학자들의 우수한 학문적 전통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킨 점에서, 그의 연구 대상이 정치, 경제, 철학, 력사, 군사, 지리, 언어, 문학, 물리, 음악, 의학, 기술, 과학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 무려 500 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발표한 점에서, 또한 그 학문적 내용과 사상의 진보성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산은 28 세 때에 과거에 합격한 후 자기의 애국적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병조 참의와 형조 참의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올라 갔으나 반대파 량반들의 모해에 의하여 죄 없는 정배 생활을 18 년 간이나 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후 고향에 돌아 온 후부터는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만 종사하다가 1836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 ×

그의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은 자기 인민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 가혹한 봉건 통치하에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절절한 심정과 관료 통치배들의 학정, 착취에 대한 증오심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었다.

이 사상은 그가 류배 생활을 하던 때에 쓴 저작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여 있다. 그것은 다산이 농촌에서 인민들의 생활 현실을 보다 더 진지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러한 현실에서 봉건 통치 계급의 죄악적 략탈이 빚어낸 나라의 참혹상을 더욱더 심각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를 새롭게 변혁하자》라는 그의 글에서 우리는 그의 열렬한 애국 사상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애국적 립장에서 출발하여 봉건 지배 계급의 무의 도식에 의하여 나라가 날로 쇠퇴하여 가는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유족하게》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사회 발전의 고질로 되여 있는 봉건적 제반 착취 제도를 변혁하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다산은 그의 이러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부패한 봉건 제도, 무능한 통치배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인민 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절박하게 요구되는 사회 경제적 제 모순의 타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인민적인 애국 사상은 그의 사회 개혁안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여 있다.



《원 목(原牧—통치자 론)》이라는 저서에는 그의 인민적 사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여 있다. 그는 《통치자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인민이 통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한 후 통치자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그 리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고 시대에는 통치자 없이 인민들이 소박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게되면 의례히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년장자에게 찾아 가게 마련이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추대하여 리정(里正)이라고 불렀으며 그에게 복종하였다. 마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당정(黨正)을 추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리유와 절차에 의하여 주장(州長)과 족장을 선정하고 그들중 최고의 어른을 황제로 추대하였던 것이니 황제란 리정에서부터 온 것이요, 군중의 추대에 의하여 된것》이므로 통치자는 본래 인민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통치 계급의 발생 시원에 관한 다산의 이러한 견해는 물론 계급과 국가 발생의 근원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신분적 차이의 발생, 통치와 복종 관계의 근원은 모두 인민 생활의 편리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이 사상은 왕의 권력과 통치와 복종 관계를 그 어떤 하느님의 명령에 의하여 고정된 운명인 듯이 말하며 그의 신성 불가침을 주장하던 당시의 반동적 유교 사상과는 적대되는 것으로서 봉건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정신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다산은 인민들이 굶주리고 비참하게 생활해 가는 것을 통탄하여 마지 않았다. 그의 시 《굶주리는 인민》에서는 이 심정이 절절히 흘러 넘치고 있다. 그리하여 다산은 백성을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봉건 사회의 기초로 되여 있는 현존한 토지 소유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토지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려전제(閭田制)》이다.

그는 농민들이 땅을 잃고 류지 도산하는 원인이 바로 대지주들의 토지 겸병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와 재산을 균등하게 소유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선 《농사하는 자만이 땅을 가지게 하며 농사하지 않은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자연 조건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려》라는 기본 생산 단위를 만들어야 하며 3 개 려로서 리(里)를 조직하고 5 개 리로서 방(坊)을 구성하며 5 방을 한 읍(邑)으로하는 생산 조직을 만들어 토지는 려의 소유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려에는 1 명의 려장을 두며 려 내의 농민들은 네것 내것 할것 없이 모두 그 려의 토지를 공동 경작하며 오직 려장의 지휘에 의하여 생산을 진행한다. 려장은 매일 그날의 작업량을 개별적으로 일역부(日役薄)에 기록하여 둔다. 가을이 끝나면 모든 곡식을 려의 공동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우선 국가에 전세를 바친 다음에 려장의 봉급을 준 나머지를 일역부에 준하여 일한 것 만큼 분배해 준다. 때문에 많이 로동한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몫이 차례지게 될 것이며 로력을 적게 한자는 많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즉 토지는 려를 기본 조직으로 하는 공동 소유로하며 수확물은 공동 분배하되 그것은 일역부에 기록된 로력일의 수에 준하여 번 것만큼 분급하자는 것이다.

다산은 또한 일하는 자만이 낟알을 벌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수공업자는 그의 제품과 곡물을 교환하도록 하며 상인은 상품과 교환하여 곡식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해가 없도록하며 그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학자, 기술자들은 그들의 공상업에 종사하거나 자제들의 교육에 힘쓸 수 있으며 관개, 수리, 기계를 연구하여 일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원예, 목축업을 가르쳐 농사에 도움

을 주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능히 살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산은 이러한 제도만이 사회의 각종 건달'군들과 기생충들을 제거하고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리상적 제도이며 모든 사람이 생산에 종사하는 이런 제도 하에서만이 농민들의 생활은 부유해 지며 사회는 발전하며 따라서 국가는 부강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다산은 당시의 력사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계급 투쟁의 의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봉건 제도를 소멸함이 없이 그의 테두리 안에서, 량반 통치배들의 《선정》에 의하여 실현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다산의 모든 진보적 견해는 그의 풍부한 인민성에도 불구하고 공상적 성격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봉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현존한 토지 소유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려전제》와 같은 새 제도를 수립하여 봉건적 착취 제도의 변혁을 요구한 그의 주장은 농민들의 반봉건적 투쟁에 고무적 힘을 준 진보적인 사상의 반영이 아닐 수 없었다.

다산은 그의 능숙한 붓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봉건 전제 정치의 계급적 지주인 당시의 대지주들과 지방 고을 수령들에게 신랄한 풍자와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이들을 작은 도적, 또는 쥐새끼라 불렀으며 감사(監司—지방 관료의 두목)들은 큰 도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큰 도적부터 없애 버리지 않으면 인민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송충이》라는 시에서는

…천관산 솔 숲은

천구루 만구루
온산을 삼'대처럼 뒤 엎었더니

하루밤 모진 송충이 온산에 퍼져 나와
………
솔은 날마다 말라들어 가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솔이여! 너 어째 그리 공순히도 꼿꼿이 서서만 죽고 마느뇨…

라고 하면서 다산은 인민들에게 자기들을 파먹는 통치 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다산은 이러한 인민은 어제'날에 판옥선, 거북선을 타고 왜적들을 호되게 후려갈리던 선봉이였는데 《송충아! 너 어째…욕심껏 다 먹어 말려서 죽이는가》고 통

송충이



정 다산

그대 아니 보았더냐
천관산 솔숲은
천 그루 만 그루
온 산을 삼대처럼 뒤덮었더니
아름드리 고목들이 울울창창 들
어섰고
돋아나는 어린 솔도 고이고이 자
랐더니
하룻밤 모진 송충이 온 산에 펴
져 나와
누에 뽕 먹듯 모조리 먹어 치울
줄이야
추악한 새끼 송충인 살매까지 거
무티티
노란 털 붉은 반점 자랄수록 흉
물스러워
바늘 같은 잎을 갉아 진액을 말
리더니
나중엔 껍질과 살마저 다 파 먹
고 헐미만 남기는구나
솔은 날마다 말라들어 가지 하나
도 움직하지 못한다。
솔이여! 너 어째 그리 공순히도
꼿꼿이 서서만 죽고 마느뇨。
옴딱지 가지, 문둥병 줄거리가
쓸쓸히 서로 쳐다만 보고 있으나
시원한 바람 소리, 짙은 그늘이
야 다시는 있을손가、
솔이여! 이 세상에 생겨날 젠 큰
뜻이 있었으리。
사시 장춘 푸르러서 한겨울도 몰
랐어라。
사랑과 은혜 흠뻑 받아 뭇 나무
중에서도 뛰여났거니
하물며 저 춘풍 도리와 영광을
다투었으랴。
한때 대궐 명당이 썩어 무너질땐
긴 들보 큰 기둥으로 집채를 떠
받들었으며
한때에 섬 오랑캐 왜적들이 달려
들땐
판옥선、거북선으로 되여 원쑤의
선봉을 꺾었더니라。
그런데 송충아、
너 어째 이대도록 욕심껏 다 먹
어 말려서 죽이였느뇨。
내 말이 막혀 분노에 찬 피만 끓
어 오른다。
어찌면 뢰공의 벼락 도끼를 얻어
내여
네놈들의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
다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시뻘건 큰 화
덕 속에 처넣어 버릴고。

치 계급을 질책하면서 《내 말이 막혀 분노에 찬 피만 끓어오른다》고 하였다. 봉건 통치배들의 죄악에 대한 다산의 이러한 분노는 그의 매시 한구절, 매 문장 한마디 마다에 안끓어 오른데가 없다.

× ×

다산은 정열적인 음조로 조국 산천의 미를 노래하였으며 근면한 농민들의 하루 생활을 아름답게 구가하였다.

다산은 모든 학문이 인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며 나라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려거든 마땅히 사람들은 과학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벌써 한강에 설치할 배다리를 설계하였고 31세 때에는 기중기 고륜(鼓輪)활차 등을 고안하여 수원성 건설에 리용하는 등 기술 과학의 중요성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그는 원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인간이 이러한 기술을 소유한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산의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주의 사상은 그의 국방론에도 명백히 표현되였다. 그는 국방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를 다하였는바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기행시에서도 국방 시책을 론하였으며 (시 《추풍령을 넘으면서》에서 《청주 너른 들이 천리에 펼쳤으니 추풍령 빼앗기다가 멱살을 잡히리라》고 노래함으로써 추풍령이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병농 일치》의 원칙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산은 인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한도로 축감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을 연구해 냈는바 그에 의하면 이러한 《묘책》이란 《려전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직 《려전제》하에서만 만민이 평등하고 재산의 소유가 균등해지기 때문에 호포(戶布—군대 비용으로 인민들에게서 매 농호당 목천 1~2 필을 징수하였다)의 부담도 고루해지며 백성들의 원망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또한 국가는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할 것이 아니라 돈을 내여 땅을 사들여 그것을 둔전(屯田(군사들로 경작하여 자체의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땅)으로하여 《싸우면서 경작》하는 제도를 관철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면 인민들을 괴롭힘이 없이 병력을 늘이고도 비용은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의 국방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단합을 강조한 점과 함께 왜적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무력 장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군비의 강화를 위하여 선진 무기로 군사를 무장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홍이포(紅夷砲)와 같은 선진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그들은 조만간 우리 나라를 침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꿩지 빠진 활에 촉 없는 화살을 메우고 백보 밖에서 마치기를 하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고 탄식하면서 이러한 주제에서도 《무기는 반드시 갖추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통치배들의 무능을 통절히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 축성법을 연구하여 수원성 건설에 도입하였다. 그가 설계한 축성 도안을 보면 아주 과학적이여서 어떠한 강적이 침입하여 와도 군사들은 후방 공급상으로나 전투 위치상 아무런 불편도 느낌이 없이 명활히 싸울 수 있게 되여 있으며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여 있다. 그는 또한 족답 수차(足踏水車—발로 디디여 수차를 전진시키는 것)의 원리를 리용한 배의 제조법과 총포, 병차(兵車—전차의 일종)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새 기술을 국방에 직접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상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 다산은 조선의 걸출한 실학자이며 애국적 사상가였다.

추풍령을 넘으며

정 다산

태백산, 소백산 산세도 장하구나
달리던 룡의 머리 여기에서 수그려。
물은 북쪽으로 황간수 흘러가고
산은 서쪽으로 적상산 뻗어 있네
봉마다 우뚝우뚝 성벽은 쌓았다만
이 령이 요새임을 그 뉘가 알리
청주 너른 들이 천리에 펼쳤으니
추풍령 빼앗기다간 멱살을 잡히리라。



조국 방위의 민요

문 하연

인민들의 절실한 사상 감정이 담긴 노래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민요가 강력한 생활력을 가지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민요에는 인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절실한 감정이 노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애국주의적인 생활 감정이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한다.

가요에 반영된 애국주의 사상 감정은 이러저러한 형태로써 나타나고 있는바 거기에는 조국의 아름다움과 자랑에 대하여, 영웅적인 인간들의 투쟁에 대하여, 고향 산천, 부모 처자들에 대한 생각과 린근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심정에 대하여 실로 형형색색으로 표현된다.

그 중에서도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는 투쟁과 관련된 노래들은 직접적으로 인민들의 애국주의 사상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민요들은 오랜 옛 시기부터 창작되고 불리워 왔다. 이런 민요들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인민들을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힘있는 무기의 하나로 되였다. 신라 시기에 화랑들이 불렀더니 왜구 침략자들도 물러갔다는 《혜성가》에는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신라 인민들의 투쟁이 노래되고 있다.

또한 고려 시기에 류 적이라는 장군 휘하의 군사들이 왜병들을 격퇴하고 불렀다는 《장생포》라는 노래를 비롯하여 임진 조국 전쟁 때 불리워진 《강강 수월래》, 《쾌지나 칭칭 나네》 등에도 인민들의 애국주의 사상이 강력하게 표현되였다.

우선 《강강 수월래》에서 그 례를 찾아 보자!

원래 《강강 수월래》라는 말은 《오랑캐들이 물을 건너 왔다.》는 의미로서 우리 인민들의 왜적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표현한 것인바 다음의 가사들은 이것을 잘 말해 준다.

(민요 가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오면서 시대의 형편에 따라 변화되였다.)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달 떠온다 달 떠온다.
강강 수월래
동해 동천 달 떠온다. 강강 수월래
달아 달아 달 들어 보자. 강강 수월래
언제련가 떨쳐 보세. 강강 수월래
위국 충절 떨쳐 보세. 강강 수월래
호미 들면 농군이요. 강강 수월래
총을 메면 수군일세.
강강 수월래
국태 민안 시화 년풍*
천세 만세 누려 보세.

※ 國泰民安時和年豐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뜻)

> 한산도 야음
> 물우에 가을 빛이 저물고
> 추위에 놀란 기러기떼 높았는데
> 근심에 겨워 잠 못 이루는 밤
> 지는 달빛에 궁모만 번쩍이네
>
> 리 순신
>
> (이 시조는 리 순신 장군이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가리 싸움을 앞에 두고 적을 격멸하고야 말 심정을 읊은 것이다.)

여기에서

《언제련가 떨쳐 보세.
위국 충절 떨쳐 보세.
호미 들면 농군이요.
총을 메면 수군이라》

등의 가사들은 우리 인민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자기의 진실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써 우리 민요 가운데서도 아주 우수한 형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노래의 진실한 형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끌어서 오늘 까지 그 생활력을 보존하여 내려오고 있다.

《쾌자나 칭칭 나네》는 《강강 수월래》와 그 음악적 구성 형태에서나 음악 언어 요소들의 특성에서 서로 같은 노래인데 이것도 역시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왜적을 격퇴하기 위한 숭고한 정신 세계가 반영된 노래이다.

또한 직접적인 전투와 관련된 노래는 아니라 하여도 《담바구 타령》과 같은 노래 역시 왜적들의 침략을 반대한 노래이다. 이 노래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어떤 감언 리설도 귀담을 것이 없으니 물러가 버리라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은도 싫고 금도 싫고 우리네 땅만 건드리지 말라.》는 대목은 이러한 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대목이다.

이와 같이 왜적을 격퇴하는 애국주의적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한 것으로 우리는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시기의 해주성을 공략한 농민군의 한 지휘자였던 임 종연의 투쟁 모습을 자랑 차게 노래한 《병정가》를 들 수 있다.

이 노래에는 당시 일본 침략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물리치기 위하여 궐기한 농민군의 애국주의 사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사냥 가세, 사냥 가세,
장련 오리포로 왜가리 (왜놈) 사냥가세,
총메고 탄알차고 장련 오리포로
왜놈 사냥 가세,

부패 무능한 리조 정부는 전 봉준의 지휘하에 일어 난 농민 봉기군의 기세를 자력으로서는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 침략자들과 야합하여 이를 진압하는 길에 들어 섰다. 실로 이 노래에는 갑오 농민 전쟁 당시 리조 봉건 정부와 결탁한 일본 침략 군대를 우선 우리 강토에서 내몰지 않으면 안 되였던 그러한 당시의 사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였다.

우리 민요 유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하나는 홍 범도 부대의 의병 투쟁과 관련된 의병가다.

의병 대장 홍 범도는 함경도 삼수, 갑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홍 범도는 농민 출신의 사람으로서 갑산 일대에서 농사와 포수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후 광산 로동자로 일하던 중에 1907년 일제의 침략이 로골화 되자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일어선 의병 대장이다.

갑산 로동자들과 빈농 청년들로 구성되였던 그의 의병 부대는 각지에서 대담하게 왜적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이 부대는 백주에 갑산 수비대를 습격하고 혜산 경찰서를 습격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홍 범도 의병대의 생활은 《의병가》에서 여실하게 반영되고 있다.

1. 오련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성대 귀심에는 내굴이 돈다.
(후렴)
에헤야 에헤야 에헹 에헹요
왜적 군대가 쓰러진다.

2. 쾌대기 원 성택 중대장님은
산고개 싸움에서 승리를 했소.
(후렴)

3. 홍 범도 대대장님 도사리 은거시
왜적 열두놈을 포살했소.
(후렴)

4. 도상리 김치개 김 도감님은
량곡 도감으로 당선되였소.
(후렴)

5. 홍 대장님 행군하는 길에는
일경이 명랑해도
왜적 군대 가는곳마다 눈개비 온다.
(후렴)

이 《의병가》에서는 의병 부대들이 반드시 승리 한다는 그런 기세와 전체 병사들에게 무한히 신임 받고 있는 홍 대장의 형상이 무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노래에서는 이 부대가 정연한 체계로 조직되여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지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의병들은 원쑤들과 용감히 싸웠다.

우리는 이상에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과 그를 노래한 민요에 대한 그 일면을 고찰하였다. 실로 이러한 민요들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의 애국주의 감정이 여실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 장검(長劍)을 빼여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 일엽제잠(一葉鯷岑)이 호월(胡越)에 잠겼어라,
> 언제나 남북풍진(南北風塵)을 헤쳐볼고 하노라.
>
> 남 이
>
> ※주—일엽제잠—조선 땅이라는 말.
> 호월에 잠겼어라—남북을 침범하는 외적들 속에 들었구나.

[단평]

노래를 정확하게 잘 부르자!

로 명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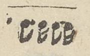
노래를 악보대로 잘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노래에 담겨진 기본 사상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언젠가 거리로 대렬을 지어 《유격대 행진곡》을 부르며 행진하는 청년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대렬 합창은 부정확하였다.

《유격대 행진곡》—이는 1930년 대 일제와의 가렬한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태여난 노래다. 우리의 유격대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원쑤 격멸에로 달려나갔고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전진하였다.

이 노래는 오늘도 우리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혁명 가요를 정확히 불러야 한다. 그런데 청년들의 대렬 합창 중에서 《유격대 행진곡》을 악보에 기록된 대로 부르지 않고 후렴 부분에서 엉뚱하게 다른 선률과 가사로 부르며 그것이 오히려 《유격대 행진곡》의 주선률인 것처럼 되여 버린 것은 어찌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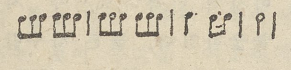
이것은 《유격대 행진곡》을 합창으로 편곡함에 있어서 그의 후렴 부분에 장식적인 선률을 인입한 것을 그 장식 부분이 노는 보조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어느새 홍미 본위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습관화되여 이제와서는 잘못을 느끼지 않게끔까지 된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때 누가 편곡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악보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장식 선률이라는 것도 기본 선률과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격대원들이 원쑤 격멸에로 나아가는 전투적 주제로 일관된 《유격대 행진곡》 에서는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의 즉 후렴 부분의 첫 악단이 이 노래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첫 부분의 리듬인



와는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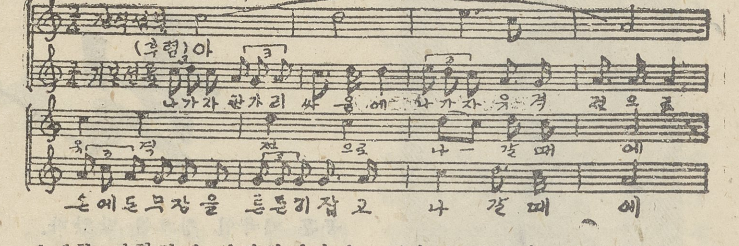


의 리듬으로 이 노래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손에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때에》 에서는



로써 이 사상을 공고하게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악보 례와 같이 그릇되게 부른다면 노래의 앞뒤 두 부분의 대조는 파괴될 것이며 따라서 선률 주체적 통일도 파괴된다. 또한 이 노래의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내용은 가사

악보 례



전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만 파악되는 것이다. 만일 우의 례와 같이 부르게 된다면 선률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가사의 절정인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의 대목은 아주 없어지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 《손에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때에 용진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대신에 《아 유격전으로 나갈때에 용진용진 나가세, 아 원쑤를 치자》로 되여 가사의 문맥도 잘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유격대 행진곡》이 가지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유격대 행진곡》에 대한 실례만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고 모든 노래는 례외없이 정확하게 잘 부르도록 힘써야 한다.





저'대에 깃든 옛'이야기

저'대는 죽관 (참대) 악기로써 비교적 제작하기 쉽다. 오랜 연주 실천에서부터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게 되였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서 인민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아온 악기다. 이 저'대의 생명은 그 음색이다. 야무진 맑은 소리를 내자면 그 재료가 좋아야 한다.

옛'적부터 저'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쌍골죽이라는 (량켠에 홈'집이 있는 참대) 재료가 가장 좋은 음을 낸다고 일러 왔다.

신라의 보배로 일러온 《만파식적》 이라는 전설까지 가진 저'대는 바로 이 조건을 다 구비한 악기다.

《만파 식적》 이라는 것은 이 저'대를 불면 소란스럽던 파도도 그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은 명칭이다.

이런것은 이 악기의 정아한 음향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서 이 《만파 식적》 의 제조 파정과 특히는 그 재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신비한 고대 환상과 관련되여 전하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인즉 대략 이러하다.

신라 시대 신문왕 (682~692) 때에 동해 바다에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괴상한 참대가 있었다.

그 참대는 낮에는 둘이 되였다가 밤에는 합쳐졌다 한다. 그 섬에 가서 이 참대를 베여다가 저'대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 (月城天尊庫)에 간직하였는데 이 저'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낫고, 가물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졌으므로 이름을 《거센 물'결을 잦게하는 저'대》 라하여 국보로 하여 온 것이다.

저'대의 이런 우'점으로하여 고대로부터 민간에는 수많은 저'대 명수들이 나타났다.

고려 시기의 문탁과 리조 시기의 박연이 역시 이 악기의 명수였다.

오늘 우리의 전문가들과 써클원들 속에서, 그리고 대중 속에서 수많은 저'대 명수들이 속출되고 있다.

청년 생활 소사전

아리야—서정적 내용 혹은 극적 내용을 가지고 관현악 반주를 동반하는 성악 작품이다. 가극에서의 아리야는 극적 발전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여 온 주인공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표현 한다.

(례. 가극 콩쥐 팥쥐에서 《왕자의 아리야》)

교향곡 (씸포니) —관현악단의 연주를 위한 대규모의 음악 작품이다. 교향곡의 내용은 고상한 인간의 사상 세계, 심오한 예술적 체현과 감정, 때로는 예리한 사상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의 각이한 측면을 반영 한다. 교향곡은 보통 4 개 악장으로 구성 된다.

관현악 (오케스트라) —일반적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여러 악기들로 연주하는 합주곡을 말한다. 교향 관현악 편성은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들로써 편성 된다.

로만스—기악반주를 동반하는 서정적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성악 독창곡 혹은 기악곡을 말 한다.

협주곡—꼰첼트라고도 한다. 관현악 반주를 동반하는 독주 악기를 위한 음악 작품이다. 협주곡은 독주 악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피아노 협주곡 크라리넬 협주곡, 트롬벨 협주곡 등으로 구분된다. 협주곡은 보통 세개의 악장으로 구성 된다.

(례. 바이오린 합주곡, 《용광로가 보이는 바다'가에서)

교성곡 (깐따따) —관현악 반주를 동반하는 독창, 합창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서정—서사적 성격의 음악 작품이다. 깐따따는 현대 생활 또는 력사적인 과거 인민들의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단편적인 사건들을 제마로 취급 한다.

(례. 윤 복기 곡 《안해에게》 김 옥성 곡 《압록강》)

철벽의 방어수



당년 27 세의 젊은 체육인 신영규 동무—그는 중앙 체육 강습소 천리마 선수단 축구부 중앙 방어수(3 번)이며 우리 나라 종합 축구단의 중앙 방어수이다.

그는 억센 투지와 풍부한 주력, 위력 있는 차기 기술과 높은 조약력을 겸비한 재능있는 체육인이다. 하기에 관중들은 상대편 공격수들이 아슬아슬한 공격을 드리대는 순간에드 영규 동무가 서있기만하면 마음을 놓는다.

그는 27 세의 젊은 나이에 벌써 51 회의 치렬한 국제 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라크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6;2, 쎄일론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5;1, 중국 8.1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0, 크릴리야 쏘베또브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8;3, 체코슬로바키야 붉은별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3;2, 모스크바 쓰빠르따크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우리 나라 선수들의 찬연한 공적 속에는 신 영규 동무의 눈부신 노력도 깃들어 있다.

그는 1959년 24세때에 공화국 영수 칭호를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체육인의 최고 영예인 공훈 체육인 칭호를 받았다.

이악하게

신 영규 동무의 생활에서 남다른 측면은 그가 비상한 노력가라는 점이다.

1958년 초 그가 중앙 체육 강습소 축구부 중앙 방어수의 위치를 맡게된 때의 일이다.

젊은 축구 선수는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이 정말 무겁고 어려운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규 동무는 그날부터 분초를 다투어 가며 더욱 이악스럽게 기술 련마에 달라 붙었다. 그는 훈련 강도를 높였다. 남들이 아침 훈련을 나갈 때면 그는 벌써 줄넘기, 아령 운동, 도로 질주 등을 끝마치고 온몸이 땀투성이 되여 있었으며 밤 취침 시간에도 운동장에 나와 기술 동작을 해 보고 안되면 될 때까지 수백번이고 반복하였다.

1959년 첫 련맹전을 보름 앞둔 때의 일이다. 그는 지도원으로 부터 대회 전까지 조약력을 어떻게해서든지 5 센치메터 이상 더 해결하라는 과업을 받았다. 그는 농구판에 뽈을 달아 매놓고 달'밤을 리용하여 련습하였다. 그는 10 메터 달리다가 뛰여 오르기, 50 메터 달리다가 뛰여 오르기, 제자리에서 2 중으로 뛰여 오르기 등을 집요하게 련습하였다. 그는 평균 하루 밤에 이 동작을 6백번 이상씩 반복하고서야 자리에 눕군하였다. 물론 하루밤새 같은 동작을 600번 이상 반복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것을 끝마치고 자리에 눕기만 하면 온몸이 솜처럼 나른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몰려오는 조름과 싸워 이기며 첫 새벽에 운동장에 뛰여나가 또다시 조약 련습을 하군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15일이란 짧은 어간에 끝내 8 센치 메터의 높이를 더 뛰게 되였다.

속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는 단순한 100 메터 질주에만 글치지 않았다. 그는 뽈을 힘껏 앞으로 차보내고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기, 뽈을 던지고 따라가서 목적한 곳에 정확히 차보내기 등 훈련을 계속했으며 매일하는 줄넘기도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한발 놀리는 사이에 두발 놀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때로는 맹렬한 훈련이 몸에 피곤을 안겨다 주는 때도 있었다. 그럴때면 동무들은 그에게 좀 휴식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영규 동무는 《뭐 이만한 일에 쉬다니, 쉰다는 것은 곧 뒤'걸음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일순도 훈련을 늦추지 않았다.

여붙이를 쥐면 살이 쩍쩍 들어 붙는 맵짠 추위 속에서도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훈련 과제를 2~3 배로 실행하였고 남이 10 리 달리면 20 리~30 리씩 달리군 하였다. 노력은 훌륭한 열매를 맺았다. 영규 동무는 드디여 높은 조약력과 주력, 뛰여난 차기 기술과 방어 기술을 가진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높은 철벽의 방어수로 되였다.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신 영규 동무의 재능은 경기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군하였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의 견지 《부다치기》에서 좀체로 밀리우지 않는 점, 높은 조약력과 정확한 중장거리 련락 등은 그의 기술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그는 상대방 선수에게 접근만 하면 어김 없이 뽈을 빼앗는다. 특히 키 큰 그가 공중높이 떠오는 뽈을 높이 뛰여올라 받아 넘기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다. 그러나 신 영규 동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절 불굴의 투지이다. 그는 어떤 불리한 정황에 부닥치더라도 항상 승리의 신심에 불타는 비상한 투지로써 난국을 타개한다.

재작년 11월 북경 경기장에서 중국 종합 축구단과의 경기때에 있은 일이다.

경기가 시작되자 영규 동무는 벌써 비상히 날쌘 동작으로 두번씩이나 우리 문쪽으로 오는 위급한 뽈을 막아서 공격수들에게 넘겨 줌으로써 우리 선수단이 두 점을 앞서게 되였다.

그러나 상대편은 그에게 두사람을 붙여서 공격로를 열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바로 이런 때에 좌측 벌축구간 16 메터 지점에서 상대편 공격수가 찬 뽈이 우리 문을 향하여 쏜살 같이 날아 들어 오고 있었다. 이것을 막아 내지 못하는 때에는 영락 없이 골잉되는 것이다.

매우 위급한 순간이다.

관중들은 《앗!》소리를 지르며 저저마다 손에 땀을 쥐였다. 상대편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되고 있는 영규 동무의 얼굴에도 고도의 긴장이 어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뽈을 꼭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규 동무는 동동 떠오는 뽈을 향하여 하늘 높이 뛰여 올랐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아 넘겼다.

그 순간 무엇인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영규 동무는 공중에서 의식을 잃은채 허궁 땅우에 떨어졌다. 상대편 선수와 호상 충돌하면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의사가 헐덕이며 담가를 가지고 달려 왔다.

《응급 처치를 해야겠소.》

동무들은 그를 담가에 실으려하였다.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회복된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련신 괜찮다고 말하였다.

《교체시키시오.》

심판원이 지도원에게 독촉했다.

이말에 정신을 차린 영규 동무는 벌떡 일어났다.

《나를 교체시킨다구요. 난 절대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겠소》

그는 온 몸의 힘을 다하여 뛰쳐 일어나더니 또다시 자기 위치로 달려 나갔다.

온 장내에 열광적인 박수와 환성이 터져 올랐다.

이날 우리 나라 선수단은 2;0으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자기 일신의 고통보다도 조국의 영예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땅우에 쓰러졌던 그를 일어서게 하였던 것이다.

신 영규 동무의 투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 축구단이 8;3 으로

체육 지식

축구에서 《중앙 방어수》의 역할

축구 경기는 경기에 참가한 두개 선수단 호상간에 벌어지는 방어와 공격의 부단한 반복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축구 경기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 역시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완강하게 잘 째인 방어는 종체로 실점 당하지 않으며 우리 편 선수들에게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 준다.

방어에서는 상대방 경기자들의 공격을 제지하는 정면 방어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상대편 경기자들의 공격이 화살처럼 집중되는 득점 문전 중앙 부분을 철저히 봉쇄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선수단이 적용하고 있는 3 인 방어 체계에서 이 위험한 지점을 감당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바로 중앙 방어수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 방어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중앙 방어수의 임무와 역할은 어떤 것인가?

중앙 방어수는 득점 문전 중앙 부문에서 상대편 중앙 공격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공격 기도를 제때에 좌절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차넣기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선수단의 문지기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보다는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어 전술의 성과적 수행을 지휘해야 하며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이행함에 있어서도 능숙한 전술적 지휘를 하여야 한다.

그는 매개의 경기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기측 방어수들의 위치, 배치 상태를 수시로 지도해야하며 또한 방어수 호상간 방어수들과 공격수들간의 합리적인 련계를 지도하여야 한다. (대인 방어, 지역 방어, 교체 방어 등으로)

례하면 상대방의 우익 공격수 7 번이 왼쪽 측면을 공격하여 온다면 이때에 자기 측 방어수 4 번은 그와 응당 치렬한 쟁탈이 벌어질 것임으로 중앙 방어수는 이런때 상대방의 측면 공격로와 불의의 중앙 돌파를 능히 막아 낼 수 있도록 그 4 번의 뒤에 위치해야 하며 자기 측 방어수 2 번으로 하여금 득점 문전 중앙 부문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각 방어 (지역 방어) 를 조직해야 한다. 때문에 중앙 방어수는 방어에서 문지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경기자의 한 사람이며 자기편 선수들에 대한 전술적 지휘관의 한 사람이다.

김 병규



승리한 쏘련 크릴리야 쏘베또브 축구단과의 경기 전날 영규 동무는 급성 복통으로 배를 그어쥐고 온 밤 뜬 눈으로 새웠다. 의사의 방조를 받았으나 몸은 마치 돌'덩이라도 달아맨듯이 움직일 수 없었다. 하루 밤 사이에 그는 헐끔해졌다.

이튿날 아침 영규 동무는 자기를 경기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만 같아서 지도원을 찾았다.

《이만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꼭 경기에 참가시켜 주십시요.》

그가 너무도 조르는 바람에 지도원은 그의 제기를 받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그는 두끼를 굶고 경기에 참가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자기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켰다.

경기가 끝났을 때 그는 쓰러질 정도로 피로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비칭거리면서도 동무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난 정말 경기에서 자기 위치가 중하다는걸 오늘처럼 느낀 때는 없었어.》

그 말에는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신 영규 동무는 이와 같은 불굴의 투지와 높은 경기 기술로써 조국의 영예를 계속 떨치고 있다.

김 휘

과학 지식

별은 오늘도 생겨나고 있다

밤 하늘에서 우리들은 무수한 별을 본다. 만약에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

현대적 관측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 안에는 약 100억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별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 그러나 이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완전한 대답을 줄 수 없으며 현재 달성한 성과만을 서술하려고 해도 몇권의 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을 한두가지만 이야기 하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태양의 《년령》을 산출해 본 결과 근 백억년 정도가 되리라 한다. 우리 은하계가 생긴 년령도 대략 백억년 내지 천억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약 20년 전까지도 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내의 백억개라는 모든 별이 백억년 내지 천억년 전에 거이 동시에 생겨 났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별이 생겨나지 않으며 일단 생긴 별들이 오직 식어가며 사멸하여 갈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 완고한 신념을 깨뜨리고 학자들은 지금도 우리 은하계 내에서는 별들이 부단히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학자들은 하늘에 《무질서하게》 분포된 별들 중에서 온도가 높은 청백색으로 보이는 별들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 그것들이 무질서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모여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련성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은 여러가지 관측과 계산에 의하여 련성단에 속한 별들의 년령이 백만년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백만 년이라면 지구상에서의 인류 력사와는 비할 수 없이 오랜 기간이다. 그러나 은하계의 력사든가 태양이나 지구의 력사에 비하면 간난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하계의 년령을 1년과 대비 한다면 련성단에서의 별들의 년령은 수십초나 수 분과 비교된다.

이 발견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우리 은하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발생하고 갱신하는 변증법적 과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데 있으며 방금 생겨나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별들을 연구함으로서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생동하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원히 가실 것 같지 않던 암흑 속에서도 광명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인민들의 지향은 꺾이운 일이 없었고 그들의 투쟁은 멎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말리에 체류하는 1 주일 남짓한 기간에 이 나라 인민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는 격언에 대하여 자주 들었다.—영예와 존엄이 없는 생활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찾겠다.—

말리 인민들은 이 말을 신성한 법률처럼 준수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발'길이 닿기 훨씬 이전에 이 곳에 번영하는 가나, 말리 왕국의 문화를 건설했던 조상의 영예를 지켰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들은 한번도 침략자들 앞에 굴복해 본 일이 없다.

말리에서도, 기니아에서도 기타 다른 곳에서도 식민주의 강도들은 한 치의 땅, 한 개의 촌락을 강점하는데 장기간의 살륙 전쟁을 해야 했다. 주민들은 현대적 무장을 갖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수 년, 수십 년씩 싸웠다.

침략자들은 한 개 마을을 지도 우에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민들은 침략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 보다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쟁하여 죽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순디야타, 엘 하지 으마르, 아호메즈 세쿠, 싸마리 투레 등 민족적 영웅들의 항전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영웅적 항전에 관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

기니아에서 있은 전국 예술 경연 대회에 출연한 세 개 단체가 한결 같이 민족적 영웅들에 대한 노래를 무대에 올리였을 때 군중들이 열광적 환호를 올리던 것을 나는 지금도 감명 깊게 회상 한다.

가나에 가면 독립문이 민족 영예의 상징처럼 서 있다. 문에는 《정의, 자유》라는 글'자가 크게 씌여 있다. 독립문이 있는 거리는 2월 28일 거리로 불리우고 있다. 1947년 이 날 이 곳에서 벌어진 일대 반영(反英)시위를 기념하여 명명된 것이다. 이 투쟁은 벌써 20 세기 30 년 대부터 시작된 조직적 정치 투쟁의 새로운 고조를 말하는 것이였다. 이 날 반영 시위에 나선 군중들을 향하여 영국인들은 발포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에 격노한 군중은 폭동적 투쟁에로 진출하였다. 아크라를 비롯한 전국이 반영 투쟁의 불'길에 싸였다. 이때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오늘도 이 독립문은 가나 인민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지향을 상징하듯 서 있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피 어린 투쟁은 20 세기 사회주의 체계가 전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한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되였다.

수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독립은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이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우여 곡절을 겪는다 해도 반드시 승리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독립은 그들의 투쟁에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한 미래는 민족 경제와 문화의 재건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해야 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가나 인민들에게 오만스럽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독립은 3 일을 가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3 일이 아니라 3 년이 지난 오늘 가나는 영국인들의 통치 밑에 있을 때보다 더욱 번영하고 있다. 가나는 독립을 선포한지 2 년 동안에 많은 광산을 개발했고 아크라 교외의 항구를 완전히 재건하였으며 볼타 수력 발전소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 기간에 가나에서는 초등 의무 교육제도 실시되였다.

민족적 독립의 길에 나선 그들은 굳건한 걸음걸이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다. 광명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진실한 벗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친근한 벗》으로 환영 받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방문한 어느 나라에 가던지 정부의 지도자들로부터 거리의 이름 없는 보통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형제적 감정으로 맞아 주었다.

조선과 아프리카는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의 반 바퀴나 떨어져 있으나 이러한 친선의 감정은 사활적 투쟁 속에서 생겨 났기 때문에 더욱 가깝고 굳은 것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알고 있다.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 인민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로서 조선 인민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내가 말리의 공보성을 찾아 갔을 때 종비세 꿀로고는 열정적으로 환영하며 말하는 것이였다.

《조선 인민은 간고한 투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제가 도발한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나 당신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당신들의 희생적 투쟁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 나선 아프리카 인민에게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 주었다. 조선은 해방된지 불과 10 여 년 밖에 되지 않고 혹심한 전쟁을 겪은 당신들이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그렇게 훌륭히 나라를 재건한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 극히 고귀하다. 당신들의 경험은 우리가 나갈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조선 사람된 영예와 긍지를 느꼈다.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과 승리에로 이끌어 주었고 이렇게 온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인민으로 되게하였다!

나는 벅찬 감격을 안고 당과 수령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예를 드린다.



청년 오락실

현상 문제

수'자 1,000과 8

1, 동무들은 수'자 8, 3 개를 가지고 24 재를 표시할 수 있다. 즉8+8+8=24 수'자 8을 8 개 가지여 1,000을 표시해 보라!

빠진 수'자 메꾸기

아래의 승'법에서 빠진 수'자(?)를 채워 보라!

```
      ?1?
    × 3?2
  ———————
      ?3?
    3?2?
   ?2?5
  ———————
   1?8?30
```

수수 께끼

1 쓰면 쓸수록 늘어 가며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2 푸른곤 주머니에 황금이 든게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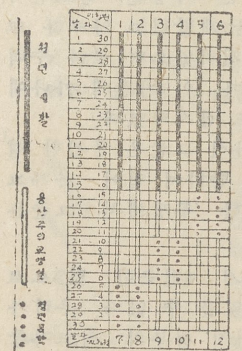
5, 6호 현상 문제 해답

답, 3일이 걸린다.

$$\therefore [1\times(1-\frac{1}{4})]\div(\frac{1}{9}+\frac{1}{12}+\frac{1}{18})=1\times\frac{3}{4}\div(\frac{4}{36}+\frac{3}{36}+\frac{2}{36})$$

$$=\frac{3}{4}\div\frac{9}{36}=\frac{3}{4}\times\frac{36}{9}=3\text{일}$$

분조장 만길이는 다음과 같이 독서 계획을 세웠다.



청년 생활 (15일)

공산주의 교양실 (10일)

청년 문학 (5일)

☆ 5, 6호 현상 문제 당선자들

함남도	위 춘섭, 김 동결, 리 자범, 리 승철, 최 순목, 김 상룡
함북도	박 칠성, 강 정송, 박 순란 리 하만
강원도	송 승한, 강 인석
자강도	박양섭
황북도	리 국률, 조 태일,
황남도	리 연수, 자 정실, 김 이길
평양시	리 정홍, 김 동준, 조 영만
평북도	계 찬숙, 김 룡규, 방 한도
평남도	최 재경, 정 히철, 송 학복 김 연숙, 김 증서
조선 인민군	최 동재, 박 호영, 민 며식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38—58 83—85)
1962년 7월 10일 인쇄 1962년 7월 15일 발행
7—230 308

로동, 체육, 건강!!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민청원들의 체육 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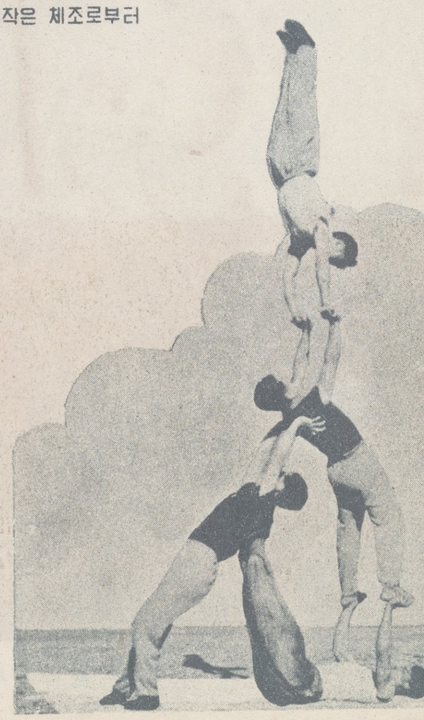
민청원들은 축구 시합도 자주 한다.



하루 일의 시작은 체조로부터



《0 : 5》 또다시 환성이 오른다.



· 힘과 랑만이 약동하는 경쾌한 예술 체조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가 예술프로 중에서
"목동과 처녀"